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74호 [주체 제23126호] 주체9(2010)년 6월 23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평양시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인들과 평양시 건설관리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 건설자들의 드높은 각오와 이상한 애국의 열정으로 하여 수도의 곳곳에서는 비약과 혁신의 기상이 약동하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이 땅위에 선군시대의 《평양변영기》를 펼쳐놓으려는 것이 전체 건설자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평양시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주는 데 중요한 파급의 하나이다.》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웅대한 건설사업이다.

우리 당은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길 위대한 건설과 결부시키고 그 실현을 위한 중요한 파급의 하나로 평양시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받아들이고있다.

10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3년 남짓한 기간에 일떠세우는 것과 같은 류에는 대건설전투는 언제나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만이 펼칠 수 있는것이다. 여기에는 오랜 역사적투쟁에서 다지고 다져온 우리 자립정치의 무궁무진한 토대와 잠재력, 당의 부름같이 된 불을 가리지 않고 산악같이 펼쳐나서는 천만군민의 위대한 정신력에 대한 우리 당의 절대적인 믿음에 의거한다.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와 하나로 잇달아야 한다. 우리는 당의 강성대국건설투구를 높이 받들고 세 세상에 선보일 대대적 사업에 있어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제1임무로 맡아 건설시공을 맡을 일로

## 사설

###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새로운 《평양변영기》를 펼쳐나가자

커나가는 한다.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평양시를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수도답게 더욱 웅장화되게 꾸리기 위한 영예로운 투쟁이다. 평양은 김일성조선의 심장이며 주체혁명의 수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수도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평양시를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벌써 평양시복구건설의 설계도를 무리히 그리고 전후에 중소 평양시복구위원회를 위임하시어 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평양속도》를 창조하도록 하고 평양시가 천리마조선의 수도답게 짧은 기간에 고쳐건설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평양시를 명실공히 혁명적수령만이 펼칠지 구현되도록 시, 인민의 도시로 꾸밀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수도건설에서 나서는 원칙과 과업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혁명하게 이끄시며 《평양변영기》를 펼쳐놓으시였다. 오늘날 수도의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기업비적장소들이 수없이 일떠서고 평양시가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인 도시로 훌륭히 꾸려질 수 있는것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되게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고 의지이다. 새로 건설하는 평양시의 10만세대 살림집들은 민족적정신과 시대적미감에 맞게 건물들의 형식과 색깔도 다양하게 하고 건축물들도 형태미와 조형미를 잘 살리면서 특색있게 건설되게 된다. 이제 수도의 중심구역과 만경화구역의 대평지구에 웅장하고 화려한 살림집들과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일떠서고 평양시는 주체혁명의 성지답게, 21세기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수도답게 일일될것이다.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지금 우리 당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례없이 거창한 작전을 펼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있다.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존엄한 시편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로운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평양시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인민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변함없는 혁명적정신의 힘있는 파시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만지는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은정의 발현으로 된다. 만수대거기 살림집은 강성대국에서 우리 인민들이 살게 될 살림집의 본보기이며 표준이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살림집을 만수대거기 살림집과 같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양대줄을 바라고있다. 당의 구상대로 10만세대의 살림집들이 현대적으로 훌륭히 일떠설 때 수도시민들의 생활은 더욱 윤택해지고 우리 조국방어에는 강성대국

승리의 만세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지게 될것이다. 《수도건설에서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선군시대 《평양변영기》를 펼쳐자!》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전체 건설자들과 인민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로 부르고 있다. 우리는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평양시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본받으며 벌려나감으로써 강성대국으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을 다시한번 힘있게 파시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정책으로 선군시대 수도건설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상한 정력과 무한한 애국의 열정을 지니시고 끊임없는 헌신으로 강령정신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정책은 하루빨리 우리 조국을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세계에 높이 떨치고 우리 인민의 세기적리상과 행복을 꽃피우시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 열렬한 애국애민의 분출이다. 전체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나가는 결연한 혁명가 되여야 한다. 우리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고귀한 충정,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의 수도건설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팍 차민쳐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단명과 배양, 창

조방식으로 싸워나간다면 얼마든지 2012년까지 10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을 끝낼수 있는 선군시대 착안된 일도 아니다. 공사량이 방대하고 조건이 어려우므로 조직지휘를 짜고드는데 성과의 비결이 있다고 승리의 지름길이 있다.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위한 중앙연합지휘부와 각 지구의 공사지휘부, 시공단위의 일군들은 높은 책임성과 혁명성을 지니고 능란한 조직지휘로 대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현실적조건에 맞게 목표물 구체적으로 명확히 세우고 시공에 대한 작전과 조직사업을 합리적으로 효과있게 진행해나가지 못한다. 건설력량과 설비, 자재보급 조건을 잘 타산하여 건설의 집중화 원칙을 출해 구현하며 모든 공사를 립체적으로, 엄밀적인 방법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설비와 물건지체들의 정비보수를 잘하고 가동률을 높여 공사에 필요한 각종 부재생산량과 물동수송량을 늘이도록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조직하여 살림집건설장

그 어디에서나 혁신의 불길기 세차게 타오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건설자들은 혁명적군정신력의 위력으로 건설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지금 회철발전소의 군인건설자들이 비롯한 모든 건설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날에날마다 세상을 높여주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혁명적군정선에 바탕을 둔 새로운 헌리마속도, 《회철속도》는 우리 인민이 본받아야 할 오늘날의 대고조전진속도이다. 평양시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은 《회철속도》의 창조자들과 영웅적위훈으로 오늘날의 대고조시대를 빛내어나가야 한다. 누구나 혁명적군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돌격적인 기수, 건설영웅이 될 일념으로 가슴 불태워야 한다. 《헌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애국의 구호, 광명의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작업을 철저히 공범의 요구, 과학기술적으로 구려 해나가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려 건설의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공법들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상태에서 원수격멸의 심정으로 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평양시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은 그 정지경제적중요성으로 보나 방대한 건설규모와 긴장된 건설기초로 보나 전당, 전군, 전민이 열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할 대건설사업이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비롯하여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은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선진적인 관심을 돌리며 건설에 대한 작전과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야 한다.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가 아무리 반대하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보장할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대담하게 혁명적으로 달려붙어야 한다. 주체공업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세멘트와 철강재를 비롯한 중요건설자재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기증기, 굴착기, 혼합기 등 건설설비와 기공구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강하게 세워야 한다. 평양시인들을 비롯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수도건설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에서 평양시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선진선동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대중의 집체적힘을 동원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도건설투구와 의도, 당정책적요구를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이 땅위에 선군시대의 《평양변영기》를 펼쳐나가도록 사상양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치사상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심감있게, 생동하고 참신하게 하여 그 실존성이 새로운 건설속도창조로 나타내게 하여야 한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상태에서 원수격멸의 심정으로 건설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평양시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은 그 정지경제적중요성으로 보나 방대한 건설규모와 긴장된 건설기초로 보나 전당, 전군, 전민이 열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할 대건설사업이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평양시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 일일단결이 우편이된 농업적전에 더큰박차를

### 주체기계공업발전의 일대 비약을 안아온 주물혁명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첨단수준의 대규모주물생산기지 완성

은 나라에 번에 번이 나는 올해 혁명단결의 거대한 불길속에서 세상에 자랑할만한 주물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공장을 낚는 《어머니공장》, 《힘있는 기업소》로 자랑스럽게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 최대규모의 능력을 갖추고 원로공급으로부터 조형, 용해, 쇠물주입, 사력,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첨단설비와 기술로 장비된 종합적인 주물생산기지가 짧은 기간에 새로 일떠들었다. 하나의 큰 공장과 맞먹는 주물생산기지가 훌륭히 꾸려졌으므로 기계공업의 기초인 주물생산의 현대화, 과학화 실현되어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그 어떤 대형주물들도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마음먹은대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주체공업은 주물분야에서도 세계의 앞선 수준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줄지의 주물생산기지가 훌륭히 완공되어 주물생산을 전문화해왔던것은 최첨단명마루로 치초는 주체기계공업에 일대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고 사회주의자립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주는 주물혁명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가 경제강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할수 있게 되었었다.》

동해지구에서 솟아난 현대적인 주물생산기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경제강국건설투구상과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통성기계련합기업소를 세 세기에 들어와서만도 여러차례 헌지지도하시면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방향과 방향을 밝혀주시였으며 세계적인 주물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이 사업을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통성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은 전투 당의 부름따라 소극성과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고 8m타량반과 3000t 프레스를 만들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기백으로 주물직장을 최상의 수준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기존의 판계를 깨뜨리고 설계를 통이 크게 혁신하였으며 현대적인 주물직장을 우리 식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새로운 착상에 기초하여 설계도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기업소의 청년들은 차광수 청년들처럼 뜻고 공적전의 앞장에 나서는 생산건물을 통채로 들어내고 수천㎡의 토량을 처리해야 하는 기본생산공

도 제품의 질은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최신식공기터파설비들이 갖추어진것을 비롯하여 생산문화가 고도로 확립된 주물생산기지는 고도로, 유해로써 공인된이른 주물생산에 종사하며 우리 로동계급을 이룬다고 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줄수 있게 하고있다. 글자의 대가계적극적으로 대형주물직장이 일떠서 주물소재 생산의 전문화 실현됨으로써 전국적 중요대상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이 요구하는 대형설비, 채취설비, 압축기, 대형기계 등 각종 주물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나라의 기계공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되었다.

주체공업의 자랑인 대규모 주물생산기지는 장대한 동을 울린 초기부터 거대한 은을 내고있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새로 일떠세운 대형주물직장과 여러 직장들의 협동하여 9만㎡원심압축기를 비롯한 많은 중요대상설비들을 자체 힘과 기술로 만들어 흉남비로련합기업소의 가스화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었다.

국가과학원 합동본원, 평양기계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함흥수리동력대학, 인민대학습당 등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대형주물생산기지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이곳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원만히 해결하였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뚝 떠오른 자랑찬 사면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이끄시는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천리마를 강령정책에서 일떠세워주신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잠재력은 막강하며 제국의 작살은 어디에서 어떤 제재와 암살책동속에서든 우리의 경제강국건설은 승승장구하고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 통성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신고 이곳 로동계급이 당의 의도대로 대형주물직장을 짧은 기간에 건설한데 대하여 대단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시며 그 뜻을 울린 초기부터 거대한 은을 내고있다. 통성의 로동계급은 조국의 부강건설에 크게 기여할 현대화의 본보기직장을 일떠세우기 위해 벌이고있는 경쟁공조 운동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성실충실한 기백과 대성비로련합기업소의 가스화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었다. 국가과학원 합동본원, 평양기계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함흥수리동력대학, 인민대학습당 등 여러 단위의 과학자

### 대고조전투쟁의 새 소식

#### 회철1호발전소 중요설비생산 결속

##### 대안중 기계련합기업소에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회철발전소건설에 보낸 발전설비생산에서 연일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올해 첫달에 1, 2호발전소의 급은판과 원수판 정장을 생산보장한 기업소에서는 회철발전소에 계속된 힘을 넣어 얼마전 1호발전소의 미지마회철실을 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1호발전소에도 보낼 타린안내장치생산도 동시 완성이 되면서 회철발전소의 첫 돌과정을 완수하였다. 이것은 회철발전소 건설자들이 1호발전소의 발전설비공조터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자랑할만한 성과로서 대안중 로동계급의 결사판혈의 정신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새로운 헌리마속도, 《회철속도》로 질풍같이 내달

리며 실적을 올리고있는 회철발전소 건설자들의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관공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작전을 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4월 중순 회철발전소건설장을 떠나시면서 회철발전소에 계속된 힘을 넣어 얼마전 1호발전소의 미지마회철실을 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1호발전소에도 보낼 타린안내장치생산도 동시 완성이 되면서 회철발전소의 첫 돌과정을 완수하였다. 이것은 회철발전소 건설자들이 1호발전소의 발전설비공조터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자랑할만한 성과로서 대안중 로동계급의 결사판혈의 정신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회철발전소건설을 함께 책임진다는 주인다운 각각 밀에 일떠들며서 결사판혈의 정신력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극 발전설비생산용단조제품들이 보장되는데 맞게 발전기와 타린의 중요부속품공공에 총력을 집중하여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회철발전소건설을 함께 책임진다는 주인다운 각각 밀에 일떠들며서 결사판혈의 정신력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극 발전설비생산용단조제품들이 보장되는데 맞게 발전기와 타린의 중요부속품공공에 총력을 집중하여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회철발전소건설을 함께 책임진다는 주인다운 각각 밀에 일떠들며서 결사판혈의 정신력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극 발전설비생산용단조제품들이 보장되는데 맞게 발전기와 타린의 중요부속품공공에 총력을 집중하여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회철발전소건설을 함께 책임진다는 주인다운 각각 밀에 일떠들며서 결사판혈의 정신력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극 발전설비생산용단조제품들이 보장되는데 맞게 발전기와 타린의 중요부속품공공에 총력을 집중하여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 운산공구공장현대화공사 적극 추진

구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기술개진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진행할데 대한 전투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은 건설물들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장할수 있게 일떠세우기 위하여 대중적열성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여러 대상에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실정에 맞게 인후차를 따져가며 전투적조직지휘를 면밀히 짜고드렸고

으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다. 설계를 담당할 설계원들은 현대화공사용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적지혜와 불타는 열정을 다 바쳐 맡은 설계물을 짧은 기간에 해냈다. 공무직장, 장비직장, 측정공무직장이 들어맞게 일떠세우는 건설대상을 맡은 설계원들은 시공구정을 잘 지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공사를 다그쳐 벽체쌓기를 짧은 기간에 끝낸데 이어 지붕공사에 큰 힘을 쏟고있다. 차고와 자재창고건설을 맡은 돌격대

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대상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소재직장, 열처리직장건설을 맡은 돌격대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2층 총막공사를 끝냈으며 배수공사를 담당할 돌격대원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자연흐름식배수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우수망공사를 다그치고있다. 종합가공개건공사에 달라붙은 돌격대원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있다. 공장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건설을 담당할

# 정론 우리의 행복을 부러워하라

모란봉에 와보시라.  
여기서는 밤을 모른다.  
어제는 불남의 꽃거경, 《평양 8경》의 하나인 울밀상촌으로 이름높은 모란봉이 오늘도 불빛찬란한 밤의 절경, 풍만한 사회주의생활의 멋들어진 광경을 펼쳐 놓고 사람들을 어서 오라 손저어 부르고 있다.  
유희오락시설들도 최첨단수준의것이요 특이한 《백야》를 펼쳐보이는 불장식도 지금껏 본격적인 황홀경의 절정이다.  
곳곳에 전개된 금양봉사시설들에서는 특색있는 음식들과 청량음료들을 봉사하고 있어 개선청년공원은 그야말로 흡사하게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장소로 되고 있다.  
즐거운 유희오락에 희한한 야경을 감상하는 정서생활의 감미로움, 금양봉사들에서의 환대까지 받아안게 되는 개선청년공원에서 하루하루야말로 머지 않아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우리 인민의 행복찬 생활의 일단을 보여주는 속도이다.

달리고있어 그야말로 모란봉은 나날이 초만원이다.  
생활의 일과가 달라졌다.  
번영의 이 시대와 더불어 낮은 낮대로 창조와 건설로 들끓고 밤은 밤대로 복락과 향유의 방으로 되었다.  
보라, 어둠을 밝히는 해불마냥 개선청년공원 중심에 높이 솟은 불빛은 금강하림을, 인공지구위성발사대를 방불케 하는 탐의 정적에서 평양의 일경을 굽어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얼마나 장쾌한가.  
순간에 거인이 된듯 발밑에 흐르는 세상만물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하늘뎡이 떠들썩하게 합성을 러치기도 하는 장관은 보면 볼수록 우리 당의 이념위권의 사상이 인민을 이처럼 만복의 하늘로 받들어올렸다는 감격으로 심장이 뒹굴고 하고 밤은 자기 밤을 불고오는 세계를 보는 조선민족의 자존심과 본래, 승려자의 희열을 또 한번 제철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란봉에 넘치는 웃음소리와 같은 사회주의 우리 생활, 우리 정서, 우리 향만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역대의 제후와 번영을 뽐내는 경제대국이라 할지라도 천만금이 드는 이런 엄청난 투자는 감히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오직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수저타산을 모르고 그 어떤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손길아래에서만 이런 인민의 지상락원, 사회주의별천지가 펼쳐질수 있을 모란봉의 웃음소리는 세상에 소리쳐 전하고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득찬 인민의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가고 사회주의의 우리 제도, 우리 세상이 제일이라는 믿심의 용망이 더 세차게 분출한다.  
우리 얼마나 기다려온 복락의 이 밤인가.  
우리 얼마나 피로써 지키고 신념으로 가꾸어온 사회주의 우리 생활인가.  
승리의 상징과도 같은 우리 인민의 이 웃음을 볼사르기 위해 원수들은 《합선침몰사건》따위를 거리낌없이 날조했지만 과연 누가 시궁창에 박혀 폐배의 눈물을 짓는가를 력사와 인류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지금 이 시각도 수도 평양의 중심부, 모란봉기슭에서 하늘땅이 울리도록 밤새 웃고떠드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보며 원수들이 왜 견줄수 없었는가.  
포성없는 대전이란 바로 이런것이다. 강자의 웃음이란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증스러운 원수들에게는 소리없는 불벼락이 되고 자주와 평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진보적인류에게는 희망의 노래로 되는 조선의 이 웃음, 이 향만!

모란봉의 웃음소리는 바로 이것을 세상에 전하며 승리의 개가마냥 높이높이 울려 퍼진다. 중중첩첩 막아서는 고난의 산악들과 시련의 바다를 헤쳐온 우리 인민들이 마침내 고생끝에 락을 보는 세월이 왔고 우리가 건영도 그저 번영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번영을 창조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며 선군의 하늘가로 펼쳤고 매아려쳐간다.  
우리 다시 모란봉기슭의 불바다, 향만의 강산을 뚫고가는 진보적인류에게는 희망의 노래로 되는 조선의 이 웃음, 이 향만!  
모란봉의 웃음소리는 바로 이것을 세상에 전하며 승리의 개가마냥 높이높이 울려 퍼진다. 중중첩첩 막아서는 고난의 산악들과 시련의 바다를 헤쳐온 우리 인민들이 마침내 고생끝에 락을 보는 세월이 왔고 우리가 건영도 그저 번영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번영을 창조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며 선군의 하늘가로 펼쳤고 매아려쳐간다.  
우리 다시 모란봉기슭의 불바다, 향만의 강산을 뚫고가는 진보적인류에게는 희망의 노래로 되는 조선의 이 웃음, 이 향만!  
모란봉의 웃음소리는 바로 이것을 세상에 전하며 승리의 개가마냥 높이높이 울려 퍼진다. 중중첩첩 막아서는 고난의 산악들과 시련의 바다를 헤쳐온 우리 인민들이 마침내 고생끝에 락을 보는 세월이 왔고 우리가 건영도 그저 번영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번영을 창조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며 선군의 하늘가로 펼쳤고 매아려쳐간다.  
우리 다시 모란봉기슭의 불바다, 향만의 강산을 뚫고가는 진보적인류에게는 희망의 노래로 되는 조선의 이 웃음, 이 향만!

사람의 세계가 차넘치고있음을 후손들은 길이 전해줄것이다.  
봉사량들에 의자가 없어지고 식탁이 높아진 사연들에도, 갖가지 고급음식들을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봉사받을수 있게 된데도 진정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음을 사람들이여, 부디 심장에 새기시라.  
우리 장군님의 부침속에는 이렇듯 인민, 인민이라는 이름만이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선군의 길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인민의 총정, 오직 당만을 굳게 믿고 조국수호의 사선천리를 웃으며 헤쳐온 인민의 강직한 마음이 너무도 고맙고 소중하시여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제도 인민을 웃고오늘도 태연도 영원히 인민만을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강그러 버치기다.  
사랑하는 인민이 그 얼마나 못견디게 그리우셨으면 8,000여명의 마니나니의 국방방을 마치고 조국땅에 들어서여 내 나라가 정말 그리웠다고 가슴속진정을 터놓으셨으리다.  
8,000여명 그 대장정에 이어 어제는 북방과 동해천리로의 수천리 현지지도를 단행하시고 오늘도 또 주제비료산을 높이 쌓아가는 남흥의 로동계급에게로 초간적인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분이 우리 장군님이다.  
인민에게는 웃음을, 자신께서는 헌신의 강행군만을!  
이것이 마를 줄 모르는 샘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인민의 웃음의 저수지임을 변이하는 해와 더불어 이 땅우에 눈부시게 솟아난 마진호텔이며 향산호텔, 집집의 창가마다 웃음꽃 필줄 모르는 만수대기들의 환희, 백과절경으로 이름난 원흥당의 《선군11경》이 목에여 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선청년공원의 유희지구 하나, 불빛 한점도 무심히 볼수 없다.  
명멸하는 유원지의 불빛은 우리 장군님의 건선길에 흐르던 야전승총의 착점적으로 안겨지고 거대한 등재를 웅성거리며 변화무쌍한 기교를 펼쳐보이는 유희지구들은 선군조선의 드세한 공격정신을 가슴에 새겨안고 있다.  
위대한 어머니를 모신 인민의 환희와 행복이 그대로 웃음의 꽃구름되어 피고 또 피는 모란봉의 밤하늘은 인민의 락을 자신의 제일가는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력사와 더불어 세세대대 더 밝게 빛날것이다.  
모란봉의 밤은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속삭이며 잠들 줄 모른다.  
지금 이 시각도 개선청년공원의 눈부신 야경정에서는 선군조선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미더운 청춘들의 즐거운 유희가 계속 펼쳐지고 끝없이 솟아오르고 질주하는 내 조국의 위용을 자랑하듯 유희지구들이 장쾌한 회전과 쾌속을 시위하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민의 모습은 더욱 밝아지고 사회주의 웃음꽃피는 《백야세계》는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듯 더 눈부시게 빛난다.  
 지금은 6월, 산과 들에 록음이 절어가는 계절이다.  
허나 어찌 산천만 푸르려진다 하랴. 사회주의 우리 생활, 우리 향만, 우리 웃음과 행복도 나날이 풍만해진다.  
창조와 혁신의 열기로 달아오르는 가슴을 안고 푸른 추녀아래 옥류관의 식사실에 앉으면 기다란 돛 이부까지 휘어진 자리로리, 찰감샐어리까지 차쳐지고 즐거운 퇴근길에 나서면 풍치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충추는 분수의 이채로운 정경이 펼쳐져 사람마다 흥겨운 웃음꽃을 피운다.  
가는 곳마다 희소식이요 보이는것마다 황홀경이다.  
원홍의 청춘파원에 사과꽃결경이 펼쳐진데 이어 나라의 대화합공정거리인 남흥에서 마침내 주제비료가 폭포로 흘러나와

들만파다 우리 비료를 팡팡 치며 농사짓는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개건된 평양의 식료공업부문의 공장들에서는 CNC화된 생산공정을 따라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 과자, 우리 사랑이 쏟아질 확고한 전망이 열리었으며 소문난 대동강과 일공정에서는 우리 생활을 멋들어지게 단장해주는 질 좋은 우리 견제들이 호프식으로 생산되어나오고있으니 이 얼마나 호소한 화풍인가.  
강성대국의 대문은 바로 이렇게 열리고있다. 인민에게 안겨져 천만가지 행복을 이렇게 나날이 무르익어가고있다.  
조선의 이 웃음, 우리 인민의 향만넘친 진군을 파연 무슨 힘으로 가로막는단 말인가.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을 한사코 지연시키려고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원수들이 아아 조선의 모란봉기슭, 개선청년공원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만 들어도 기절초풍하며 이 나라, 이 인민의 무진막강한 정신력만이 무릎을 꿇고 말것이다.  
자기 수명, 자기 힘을 믿는 인민의 웃음만큼 무서운 무기는 없다.  
오늘 우리 인민이 세상을 향해 크게 터치는 웃음은 윤명당 미폐를 맡아안아 못피워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사는 무한한 행복감과 긍지의 분출이다.  
위대한 인민의 어머니가 계시어 우리의 영원한 사회주의웃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 어찌 갑일성민족의 운명이고 미래를 행복인식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지 않을수 있을것이며 불타는 총정을 맹세하지 않을수 있을것인가.  
행복의 웃음을 짓기보다 보답의 웃음, 실천의 더 큰 자욱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여,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우리 장군님께서 5,000년민족사가 일찌기 알지 못한 번들을 이룩하고 나라를 강대국으로 일떠세우신 그 공적만으로도 이제는 편히 쉬시여도 되시련만 낮에 밤을 이어 인민의 행복을 위한 초강도 강행군길을 걷고계시는 그이의 은덕속에 사는 이 나라 공민이라면 어찌 고마움의 눈물만 짓고 감사의 노래만 부를수 있으랴.  
강성대국건설자라면 누구나 애국의 실천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진정한 기쁨을 드려야 하고 그의 안광에 환한 미소가 피어오르게 하여야 한다.  
이리서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총정을 안고 대고조의 박차를 드세차게 가해야 한다.  
그대가 로동계급이러면 주제철, 주제설유, 주제비료를 뽐낸 시대의 선구자들처럼 장군님께서 기뻐하실수 있게 자랑찬 창조물을 내놓아야 하고 그대가 농업근로자라면 동서해지구의 농장들에서처럼 풍년로적거리를 높이높이 쌓아올려야 하며 그대가 지식인이러면 위성과 력시, 우리 식 CNC화를 성공시킨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명실공히 조선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적의 열매들이 연속 수렴지게 해야 한다.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과 포부는 하늘에 닿아있다.  
번영도 세상이 어찌 모르는 그런 희한한 번영, 문명이 인류가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최고의 문명, 승려도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려는 장군님의 원래한 포부를 누구나 심장에 안고 살자!  
강성대국건설자가 그대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위대한 향도의 땅이 그대들의 앞길을 환히 밝히고있다.  
인민이여, 최후승리의 그날을 위해 더 크게 웃으며 신심드높이 나아가자, 세상을 굽어보며 미래를 향하여 더 높이, 더 빨리 달려나가지!

편이여 변이 나고 리상이 더 찬란히 실현되고있는 흥하는 이 나라엔 시간이 흐르고 날이 바뀔수록 좋은 일, 놀라운 사변들이 계속 생겨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4월 종합적인 문화휴식장소로 훌륭한 꾸러짐 개선청년공원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신것처럼 지금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오르는 대고조의 불결속이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품고있던 리상과 포부가 하나하나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화풍은 이 땅우에 거언히 일떠서게 될 주제의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눈앞에 펼쳐주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조선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이어 사회주의경제강국, 과학기술선진국의 지위에 올라서고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울것없이 잘 살게 될 최후승리의 날은 멀지 않습니다.》

정말 같은 과도를 들부리며 만리창과를 헤가르듯한 배그레도 좋고 어디가 하늘이고 땅인가싶게 급속도로 회전하는 3중회전반과 관성비행단차도 탈수록 흥취날 뿐 아니라 오직 전진만을 아는 선군조선의 공격기상을 또 한번 받아안게 하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즐기는 유희오락시설로 되고 있다.  
투쟁속에 맞보는 락이여서, 꿈으로나 여전한 황홀경이여서 심장에 와닿는 총격은 그대도 큰것인가.  
땅우에도 웃음소리이고 하늘중에도 웃음소리로 짝 차있다.  
평범한 근로인민들이 발전된 몇몇 나라들만 가지고있다는 희한한 유희지구들을 마음껏 타고 소문난 읍까지 맛보는것도 흥취나는것이지만 모란봉의 불장판은 또 얼마나 황홀한가.  
저 하늘의 수억만개 별들이 다 여기에 내려앉았다가 꿈의 환상세계를 련상케 하는 모란봉의 불야성앞에서는 누구나 무아경에 휩싸이게 된다.  
우리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라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에 대하여 노래와 시에 담았 수없이 말해왔다.

잠들 줄 모르는 이 밤 사람들은 노래나 시가 아니라 생동한 현실로써 저 하늘의 무수한 별을 따라 인민의 발밑에, 머리에, 온 모란봉기슭에 불빛바다로 펼쳐진 온 이 하늘같은 은덕에 목메이고있다.  
웃어도 누구나 다같이 웃고 최고의 문명을 누리러 온 나라 인민이 함께 향유해가는 이처럼 아름답고 긍지로우며 위대한 생활은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아마도 웃음꽃이라는 실제한 《꽃》이 있다면 그 꽃의 향기는 모란봉과 더불어 즐기는 우리 인민의 환한 모습일것이고 기쁨넘친 그 밤의 주제는 바로 《지세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이》 일것이다.  
흥하는 이 세월에 피어난 향연이 꽃파도 같은 개선청년공원의 매혹적인 야경과 즐거운 환희는 사회주의만이 피워올릴수 있는 진정한 인민의 웃음꽃이고 앞으로 우리 인민이 누리게 될 강성대국문명의 높이를 보여주는 속도이며 승리를 향해 곱합함이 돌진하는 선군조선의 락판의 상징이다.  
그대가 화가라면 붓을 들고 여기 고노폴로 달려오고 그대가 시인이라면 천만가지 행복이 무르익는 여기 모란봉에 와서 기쁨의 서정시를 엮으라.  
그러면 아마도 그 화목, 그 시구절만큼 진실하고 생동한 강성대국문명의 훌륭한 풍경, 사회주의의 우리 생활에 대한 찬가는 없을것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환락의 거리, 사치와 방랑에 젖어있는 부유한 자들의 생활을 수없이 찾아볼수 있다.

가증스러운 원수들에게는 소리없는 불벼락이 되고 자주와 평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진보적인류에게는 희망의 노래로 되는 조선의 이 웃음, 이 향만!  
모란봉의 웃음소리는 바로 이것을 세상에 전하며 승리의 개가마냥 높이높이 울려 퍼진다. 중중첩첩 막아서는 고난의 산악들과 시련의 바다를 헤쳐온 우리 인민들이 마침내 고생끝에 락을 보는 세월이 왔고 우리가 건영도 그저 번영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번영을 창조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며 선군의 하늘가로 펼쳤고 매아려쳐간다.  
우리 다시 모란봉기슭의 불바다, 향만의 강산을 뚫고가는 진보적인류에게는 희망의 노래로 되는 조선의 이 웃음, 이 향만!  
모란봉의 웃음소리는 바로 이것을 세상에 전하며 승리의 개가마냥 높이높이 울려 퍼진다. 중중첩첩 막아서는 고난의 산악들과 시련의 바다를 헤쳐온 우리 인민들이 마침내 고생끝에 락을 보는 세월이 왔고 우리가 건영도 그저 번영이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번영을 창조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며 선군의 하늘가로 펼쳤고 매아려쳐간다.  
우리 다시 모란봉기슭의 불바다, 향만의 강산을 뚫고가는 진보적인류에게는 희망의 노래로 되는 조선의 이 웃음, 이 향만!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조선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이어 사회주의경제강국, 과학기술선진국의 지위에 올라서고 우리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울것없이 잘 살게 될 최후승리의 날은 멀지 않습니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흥라도와 파우의 강변을 바라보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아마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저 흥라도여울들이 구슬같이 반짝이면서 흐르다그고 하여 옥류라고 하고 그 옥류와 부딪치는 저 명물같은 돌벼는 옥류벽이라고 불렀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그 근방에서 일하고있는 한 성공로인을 보시며 저 로인에게 이 지대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하시였다. 잠시후 지명파 그 유희에 대한 로인의 대답을 들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해 하시며 참말로 이곳을 흐르는 대동강물은 글자 그대로 옥류라고,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옥류라는 이름을 따서 우리 이다리를 《옥류교》라고 하는것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고 말씀드리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참 좋은 의견들이 있어 제기되고있는데 이것은 이 다리에 대한 인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주었고 있다고 하시며 우리는 혁명도

## 친히 지어주신 다리 이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승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이십니다.》  
주제 49 (1960)년 5월 어느날 수도의 여러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는 한 다리건설장을 찾으셨었다. 공사장에 도착하시어 건설자들의 환호에 담배를 보내시며 현장을 돌아보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이 다리는 우리 시대의 훌륭한 기념물이니 잘 건설하자고 하시면서 다리건설과 관련한 건설자들의 의견을 허물없이 들어주시였다.  
그때 한 일꾼이 다리이름을 짓는 문제가 건국각지의 인민들로부터 제기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참 좋은 의견들이 있어 제기되고있는데 이것은 이 다리에 대한 인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주었고 있다고 하시며 우리는 혁명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승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이십니다.》  
주제 49 (1960)년 5월 어느날 수도의 여러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는 한 다리건설장을 찾으셨었다. 공사장에 도착하시어 건설자들의 환호에 담배를 보내시며 현장을 돌아보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이 다리는 우리 시대의 훌륭한 기념물이니 잘 건설하자고 하시면서 다리건설과 관련한 건설자들의 의견을 허물없이 들어주시였다.  
그때 한 일꾼이 다리이름을 짓는 문제가 건국각지의 인민들로부터 제기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참 좋은 의견들이 있어 제기되고있는데 이것은 이 다리에 대한 인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주었고 있다고 하시며 우리는 혁명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승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이십니다.》  
주제 49 (1960)년 5월 어느날 수도의 여러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는 한 다리건설장을 찾으셨었다. 공사장에 도착하시어 건설자들의 환호에 담배를 보내시며 현장을 돌아보시던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이 다리는 우리 시대의 훌륭한 기념물이니 잘 건설하자고 하시면서 다리건설과 관련한 건설자들의 의견을 허물없이 들어주시였다.  
그때 한 일꾼이 다리이름을 짓는 문제가 건국각지의 인민들로부터 제기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참 좋은 의견들이 있어 제기되고있는데 이것은 이 다리에 대한 인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주었고 있다고 하시며 우리는 혁명도



절경이여, 길이 전하라! 위대한 선군령장의 조국수호의 자욱자욱을

본사기자 김훈준 찍음

안석길

#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로 추동하는 위력한 당조직정치사업

## 최첨단돌파의 길을 어떻게 열었는가

열대전 남포경공업공장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공장자체의 힘과 기술로 컴퓨터수조조제에 의한 현대적인 테프절단기를 만들어 생산에 받아들이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담당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자력갱생의 정신을 지니고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새 기술의 개척자, 전조병이 되어야 합니다.》

공장자체의 힘으로 컴퓨터수조조제에 의한 테프절단기를 새롭게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신통한 믿으려 하지 않았다.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였기때문이었다.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발기한 기술일군 자신도 정작 일을 시작하고보니 과연 성공할수 있었는가 하는 위구심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러하다보니 이 사업은 첫시작부터 활기를 띠고 진척되지 못하였었다.

하더라면 기술자, 기능공들속에서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세

남포경공업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차에 일케 하자면 어느 고리부터 풀어야 할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초급당일군들은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았다. 물론 내세운 전투목표를 성공시키자면 이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신비주의에 대한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의 사고관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초급당일군들은 문제해결의 열의를 여기서 찾았다. 초급당위원회는 기술자, 기능공들에게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산할까 아니라고 하는 경계에는 장군님의 명언의 참 뜻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주면서 테프절단기제작에 신심을 가지고 달려달도록 이끌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은 자기의 힘과 지혜, 재능을 믿는데서 생기는 법이다.

초급당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과 마주앉아 CNC기술을 착상하고 주도한 주인공은 군사복무한 한 제대군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남의 힘을 바라볼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지혜를 믿고 최첨단돌파의 길을 열었다.

이것이 내 힘으로 기어올라 최첨단을 돌파해보겠다는 대단한 결심으로 바뀌어졌다.

공장에서 《보배》라고 불리는 수리공 박기환동무는 테프절단기설계와 프로그램작성을 맡아나섰고 작업반장 김영철, 용접공 오철수, 선반공 김익현동무들은 부속품가공을 담당해나섰다.

초급당위원회는 최첨단돌파의 출발선에 나선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연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초급당위원회는 기술자, 수리공들에게 창조적 발상을 마련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끝장을 볼 때까지 이들의 사업을

도 하면서 성공의 한길로 이끌었다. 당, 행정일군들이 합심하여 기술자들의 사업을 적극 후원하는 기계제작에 필요한 소재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출선 도맡아나섰고 기사장 조경남동무는 수리공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밤낮이 따로없이 뛰어다녔다. 기술일군들과 수리공들이 분발해나섰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수십차례의 실험 끝에 테프절단기를 CNC화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5직장 정장장 정정실, 부문장비서 김경동동무들은 수리공들과의 사업을 진지하게 따고들어 제품의 질과 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는 수직선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창의 고안을 생산에 받아들여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천과정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그 누구나 대담하게 최첨단돌파전에 용감 뛰어들어 혁명적근거정신, 근군기질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도록 용케 방향을 잡아주고 같이 이끌어주던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최 일 호

사 회 주 의 경 쟁 운동의 열풍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은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극성을 높여 발양시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중적혁신을 일으키려던 그 어느 단위에나 반드시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당의 요구대로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쟁운동속에 창조와 혁신이 있다.》

일이 잘되는 단위들에 가보면 한가지 주목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경쟁운동의 열풍이다.

얼마전 우리가 찾은 덕천철제가정용품공장에서 사회주의경쟁운동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었다.

이 공장에 가보면 자체의 실정에 맞게 이용하는 여러개의 기발이 있다. 공장사람들은 《만능우승기》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만 한 사연이 있었다.

사실 이 단위는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소문없던 단위였다. 그랬던 이 단위가 몇해 사이에 왜이렇게 하고 오를은 시적으로 당당히 앞선 단위로 되었다.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실속있게 벌려온데 있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힘있게 이 운동을 대안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덕천철제 가정용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관점을 똑바로 세워주는데 선 차적인 힘을 넣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극성을 높여 발양시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중적혁신을 일으키려던 그 어느 단위에나 반드시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당의 요구대로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경쟁운동속에 창조와 혁신이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공장의 활성화를 짧은 기간에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이렇게 사회주의경쟁운동에서 찾았다.

초급당위원회는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단순한 실무적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경쟁운동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었다.

이 공장에 가보면 자체의 실정에 맞게 이용하는 여러개의 기발이 있다. 공장사람들은 《만능우승기》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만 한 사연이 있었다.

사실 이 단위는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소문없던 단위였다. 그랬던 이 단위가 몇해 사이에 왜이렇게 하고 오를은 시적으로 당당히 앞선 단위로 되었다.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실속있게 벌려온데 있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 힘있게 이 운동을 대안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 최첨단용품생산협동조합 초급당위원회에서

최첨단용품생산협동조합에서 주인들의 기교에 맞는 질 좋은 위구심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러하다보니 이 사업은 첫시작부터 활기를 띠고 진척되지 못하였었다.

하더라면 기술자, 기능공들속에서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세

### 창조에 대한 배심을 키워주어

평형일용품수품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지난 5월 어느날, 지배인과 현행생산문제를 토의하고 그의 사무실을 나서는 평형일용품수품공장 초급당비서 리정희동무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새 도금방법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혁신이 처지고있는것을 놓고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던 지배인의 말이 귀전에서 그냥 맴돌았던것이다.

초급당비서는 행정경제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더 잘 떠맡아주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행정경제일군들이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일군들이 그들의 어떻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습니다.》

초급당비서는 지배인 김정길동무가 목표를 높이 세운데 맞게 계속 배심있게 밀고나가도록 례 더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초급당위원회가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심화시켜 그 기술혁신과제가 탄탄히 추진되게 하

### 한W의 전력이라도 극력 아껴쓰자

지금 어디서나 절실히 요구되는것이 전력이다. 전기가 많아 원수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개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다. 날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켜줄수 있는 전력공급부분에서 전력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전기절약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여야 한다.

한W의 전기라도 극력 절약하고 아껴쓸 때 그만큼 조국의 재부가 늘어나고 우리들자신의 행복이 커지게 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절약자 곧 생산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깎자 하면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

출연진부분에서 전력공급을 짜고들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경제 중요단위들에 최우선적으로 전기를 보장하면서 충전체제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또한 송배전망들의 정비보수 공작을 예진성있게 진행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력공급과 소비에서 제도와 지시를 엄격히

### 원산봉화피복공장 일군들

얼마전 우리는 원산지역 전력공급부분의 한 일군으로부터 원산봉화피복공장에서 전기절약사업을 잘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일군의 말에 의하면 이 공장에서는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서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매달 말까지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었다. 한KW의 전력이라도 아껴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이 공장을 찾아 우리는 취재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차생산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직장, 작업반들 사이에 조직합력이나 국가적으로 공장들사이, 지역들사이에도 널리 조직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을 찾은 우리는 잘 꾸려진 구내를 거쳐 생산현장에 들어섰다. 그때 유달리 우리의 눈길을 끄는것이 있었다. 교차생산 조직이었다. 여기에는 교차생산 맞물림시간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었다.

우리와 동행한 지배인은 그 조직표를 놓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이곳에서는 전기설비들이 많은 실정에 맞게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드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책임기사를 비롯한 참모부서의 일군들이 매 작업반들에서 리용하는 기대들의 전력소비량을 정확히 따져본

### 두벌농사의 중요한 시기

앞그루작물수확과 동시에 뒤그루작물심기를 해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두벌농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데 따라 두벌농사수확도는 물론이고 올해농사의 성과여부가 결정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농업지도기관들, 협동농장들에서 당의 방침에 대한 높은 관념과 대도를 가지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강하게 내밀어 두벌농사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결사관철하겠다는 비상한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앞그루작물갈무리와 뒤그루작물심기를 계획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앞그루작물갈무리를 외따닥 해쳐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은 앞그루밭, 보리, 감자를 제때에 거두어들이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농기계와 운반수단들을 모조리 동원하여 앞그루작물갈무리를 끝내는 기간에 외따닥 갈아야 한다.

탈곡기계를 민간동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제때에 떨어내며 건조대책을 철저히 세움으로

### 전기 절약 투쟁을

한W의 전력이라도 극력 아껴쓰자

지금 어디서나 절실히 요구되는것이 전력이다. 전기가 많아 원수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개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다. 날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켜줄수 있는 전력공급부분에서 전력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전기절약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여야 한다.

한W의 전기라도 극력 절약하고 아껴쓸 때 그만큼 조국의 재부가 늘어나고 우리들자신의 행복이 커지게 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절약자 곧 생산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깎자 하면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

출연진부분에서 전력공급을 짜고들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경제 중요단위들에 최우선적으로 전기를 보장하면서 충전체제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또한 송배전망들의 정비보수 공작을 예진성있게 진행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력공급과 소비에서 제도와 지시를 엄격히

### 애국의 한 마음

로동동심원 애국의 한 마음

보내는 소식에 의하면 덕선관편의 일군들과 한마음이 애국의 한마음이고 전기절약사업에 모범을 보이고있다.

5직장과 22개의 일군들은 짧은 기간에 용량이 큰 전기설비들을 알맞은 용량의 설비들로 바꾸었으며 운반공의 로동자들은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전차에 새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새 수명을 늘이면서도 많은 량의 전기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관방에서는 전기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생산공정을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면서 자연호흡식먹는 물공공체제를 더욱 완성하고 잘 운영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있다.

로동동심원 제조철동무가 보내는 소식에 의하면 문천시 송배전소에서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전력공공체제를 바로 세우고 전력소비단위들에서의

### 군중적으로

원산봉화피복공장 일군들

얼마전 우리는 원산지역 전력공급부분의 한 일군으로부터 원산봉화피복공장에서 전기절약사업을 잘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일군의 말에 의하면 이 공장에서는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서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매달 말까지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었다. 한KW의 전력이라도 아껴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 이 공장을 찾아 우리는 취재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차생산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직장, 작업반들 사이에 조직합력이나 국가적으로 공장들사이, 지역들사이에도 널리 조직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을 찾은 우리는 잘 꾸려진 구내를 거쳐 생산현장에 들어섰다. 그때 유달리 우리의 눈길을 끄는것이 있었다. 교차생산 조직이었다. 여기에는 교차생산 맞물림시간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었다.

우리와 동행한 지배인은 그 조직표를 놓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이곳에서는 전기설비들이 많은 실정에 맞게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드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책임기사를 비롯한 참모부서의 일군들이 매 작업반들에서 리용하는 기대들의 전력소비량을 정확히 따져본



더 많은 비료를 농업전선에 보내주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남흥철화확립합기소에서 - 김진명 작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치수를 높이기 위해 집체적지해를 합쳐가고있다. -수성천종합식료공장에서- 진성남 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남포시 항구구역 류사동에 있는 홍순남동무의 집에는 색바랜 해군복이 정히 걸려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 군함과 더불어 항해할 때 달린 옛 해병의 제복이 뜨겁게 느껴지는 해군복, 이제는 귀머거리가 되어 버린 시작하고 할아버지 불리우는 홍순남동무가 어저녁에 제복 수습인이 지난 오늘도 그 군복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것인바,

# 어제날 해병은 오늘도 애국의 항로를 달린다

집배 <원산-2>호 선장 홍 순남 동무

젊은 시절에 대한 추억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인생의 끝까지 애국의 항로를 변함 없이 이어갈 억센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기 위해서였다.

근 40년세월 파도사나운 항해길을 달려온 홍순남동무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있으며 수많은 사연을 축삭였을 그 군복에는 한 짐배장장이 지니고있는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비껴있었다.

## 불가능을 모르는 병사의 본때로

통연군에 고향을 둔 홍순남동무가 제대배낭을 뜯어보는 어느 한 항구도시였다. 제대군인들이 어리고 힘든 초소로 부른당의 호소가 경장자리를 또렷한 군복을 입은 그의 가슴을 뚫어 놓았다.

(조국의 바다여, 내 너와 함께 항쟁을 살리라!)

검푸른 물결위에 삶의 지향과 포부를 엮은 그는 병사시절의 일당백정신으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꽤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때 홍순남동무가 배는 물고기잡이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아니었다. 그러다나니 바다에서 기술적업무를 하고는 배를 세우려는 때가 적지 않았다. 일류선정이 많고 견고한 홍순남동무의 마음은 개운하지 못하였다.

(기술적업도 하고 고기잡이도 할수 있게 배를 개조하자.)

사실 그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고기잡이에 필요한 설비와 어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것이 쉽지 않았고 기술적업도 고기잡이에도 편리하게 배를 개조하는것도 보통 용단이 아니고서는 엄두를 낼수 없는것이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를 긁적거리며 자체의 힘으로 배를 개조하면

아, 일할줄 알거던.>

당시 한 중앙기관 일원이었던 김복만동무의 말이다. 불가능을 모르는 병사의 본때로 일판을 통이 크게 벌리고 팔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홍순남동무에 대한 미더움과 대견함을 사자들은 《해군사즈》라는 애칭에 담기도 하였다.

홍순남동무는 당조직과 집단의 믿음과 기대를 명심하고 분발하였다.

그가 <원산-2>호의 선장으로 일하게 되였을 때였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수십년간에 견뎌온 배에서 뒤떨어진 설비들이 적지 않았고 생산문화도 웅대한 수준에 있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는 배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선원들을 불러일으켰다. 누구나 한가지 이상의 가지 있는 창의안, 합리화안을 내놓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기울였다. 그 날에 항해조종수로 그람, 지평정화기, 화물장안장감시장치, 화재경보기를 비롯한 50여건의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였으며 기술장, 목욕탕 등이 새롭게 꾸러지게 되였다. 현대화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갖가지 집자기 사나와지기 시작하였다. 초속 13m의 강풍이 불면서 3~4m의 높이로 파도를 일구었다. 파도가 얼마나 세고 높는지 화원으로 좌현으로 갑자기 쓸려선 선체는 15°의 경사로 기울었다. 비상사고였다. 선실상가상으로 기관의 뿔카수관 바깥이 터져나갔다. 홍순남동무의 손에는 땀이 질뻔했다. 안타까운것은 더 말할것도 없었다. 지난 기간 한번도 화물수송 임무를 드린적 없는 《원산-2》호였다. 더구나 3대혁명붉은기훈을 수여받던 사기충천하여 이번 화물수송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던 한해충화를 중지시킬것이고 하려 나간 항해정이었다. 즉시 전투가 벌어졌다. 손이

마 남지 않았다. 홍순남동무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부선장은 추진기상태를 확인할것. 기관장은 카프링상태를 료해할것.》

뜻밖에도 조정된 정황의 원인을 찾기 위해 모두가 떨쳐나섰다. 단정중을 타고내린 선원들이 차거운 물속에 뛰어들 때 기관실에서도 선원들은 땀을 흘리며 설비를 분해하였다. 원인은 탄성카프링이 못쓰게 된대 있었다. 선원들은 긴장하였다. 마땅한 바다우에서 카프링을 수리할수도 없었다. 끝배를 불러올수도 없었다.

(만약 지금이 적합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런 시각이라면?!)

맹배해진 공기를 깨치며 홍순남동무는 말하였다.

《크랄크추과 추진기축을 서로 용접하여 연결합시다.》

순간 놀라움에 비친 눈빛들이 서로 부딪쳤다. 축의 중심

은 사소한 편차없이 맞추는것도 쉽지 않았다. 용접부위가 견딜수 없겠는지도 알수 없었다. 자칫하다가는 기관이 파괴될수도 있었다.

《다른 방도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항해를 보장해야 합니다.》

선원들은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짧은 시간에 용접을 끝내었다.

《원산-2》호는 다시 고통소리를 높이 울리며 물결을 헤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며 배는 예정보다 2시간이나 앞당겨 임항하게 되었다.

불가능을 모르는 강인한 의지를 바다길에 승승이은 홍순남동무에게 있어서 해군정기를 떨칠 날이던 시절의 군복은 삶의 자세를 비추는 《거울》이였고 기적과 위훈으로 떠밀어주는 《원동력》이였다.

## 공화국기발을 지켜 12시간

몇해전 12월 어느날이였다. 대외수출선에 나선 《원산-2》호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진하고있었다.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사나와지기 시작하였다. 초속 13m의 강풍이 불면서 3~4m의 높이로 파도를 일구었다. 파도가 얼마나 세고 높는지 화원으로 좌현으로 갑자기 쓸려선 선체는 15°의 경사로 기울었다. 비상사고였다. 선실상가상으로 기관의 뿔카수관 바깥이 터져나갔다. 홍순남동무의 손에는 땀이 질뻔했다. 안타까운것은 더 말할것도 없었다. 지난 기간 한번도 화물수송 임무를 드린적 없는 《원산-2》호였다. 더구나 3대혁명붉은기훈을 수여받던 사기충천하여 이번 화물수송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던 한해충화를 중지시킬것이고 하려 나간 항해정이었다. 즉시 전투가 벌어졌다. 손이

는 30°에 이르렀다. 항해규정에는 배의 경사가 30°를 벗어난면 침몰을 면치 못하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있었다.

《배의 무게를 줄여 줄기만 하면 될것이다.》

(조국이 준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난단 말인가?!)

그의 눈길은 저도모르게 배의 굴곡에 새겨진 공화국기발에로 향하였다. 근 40년세월 바다길을 달려온 그에게 있어서 기발은 나사처럼 고향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부모처자의 정겨운 웃음이었다. 자기의 긍지높은 오늘의 행복도, 자식들의 영광년월 때일의 희망도 그 기록에서 뜨겁게 안아보지 않았던가.

그의 머릿속에는 월미도영웅들의 모습이 더떠올랐다. 단 4문의 해안포를 가지고 침략자들의 약 1천대의 비행기, 수백척의 함선, 5만여명의 대병력과 맞서싸운 그들의 불굴의 녀를 어찌 잊을수 있랴.

—동무들, 설사 배가 침몰될수도 있다. 하지만 경에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은 절대 침몰될수 없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엔 없다고 하신 장군님의 명언을 명심하자.

간첩들의 회색선한 홍순남동무의 말은 기물봉지에 불이 달린 선원들의 심장을 활활 태워주었다.

—경에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자!

—동무들, 설사 배가 침몰될수 있음이 있어도 배와 운명을 같이하자!

평범하는 남바다의 총포성없는 대결전에 모두가 떨쳐나섰다. 함의회절정대로 홍순남동무는 백두산위인들의 초상화를 《결사옹위》라는 글발이 새겨진 비사합에 옮겨주었다. 순간 뜨거웠던 울적 치밀어올랐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품

을 떠나 순간도 자기 삶을 생각해보지 못한 것였다. 출항할 때면 언제나 절세의 위인들의 초상화를 우러르며 기쁨의 보고를 안고 돌아오리라 결의 다지곤 하지 않았던가.

(그리운 장군님, 죽어도 버릴수 없는 이 배와 함께 가이여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사전에 나선 지휘관만아 조타실에 버티고선 홍순남동무는 절망적명한 목소리로 외쳤다.

《침로를 제일 가까운 항으로 돌릴것. 부선장은 배의 경사를 바로잡기 위한 전투를 조직할것. 모든 선원들은 자기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킬것. 기관 전속으로!》

좌현갑판이 바다물면과 수평이어서 과도할 때마다 갑판중심부까지 물에 잠기는 《원산-2》호, 순간에 침몰될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정황속에서도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제재같은 과도를 맞받아 굴뚝 없이 나아가는 그 광경은 전국의 나날 적인 우박처럼 불비속을 뚫고 적순양함을 향하여 용감히 돌진하던 우리 어찌외경들의 모습그때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 문득 울음은 발동기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한 나라의 구조적 습기였다.

《배를 포기하고 빨리 퇴승기에 오르라. 10분밖에 여유가 없다.》

직수기는 갑판을 스티킹 못 낮추고 떠돌아다니다 계속 하였다.

(배가 없는 이 몸을 생각할수 없다. 조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경모의 정 표식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2일 김용주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대표단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을 하시신 경에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마음씀이 그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 조선이관친선주간 개막집회 진행

조선이관친선주간 개막집회가 21일 대동강의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장은 우리 나라 기발과 이관기발이 세워져있었다. 집회에는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호예인 파라피 이관무성 부상 일행과 메르세아 머르디온 주조 이관아카데미에 참가하였다.

집회는 이관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집회에서는 친연친구부위원장인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존경하는 세드얼리 케메네이 각하의 력사적상봉을 뜻깊은 순간이라고 말하였다.

이날은 이관친선주간을 선포하고 해마다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해나간다고 말하였다.

이관친선주간은 이관공화국의 진취성을 수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의 공교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고압합력행동을 물리치고 평화적합동관리를 수호하기 위한 이관친선주간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지지와 편대를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호예인 파라피 부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세드얼리 케메네이 도자각하의 평양방문과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의 상봉은 두 나라사이의 판매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이관친선주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걸쳐 풀림없이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이관과 조선은 공평한 협정을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서로 지지하여왔다고 하면서 대교조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이 난관을 이겨내고 2012년까지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며 반체투쟁에서 승리하리라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조선이관친선 평양친선중학교 학생들의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로씨야 이고리 모이세예브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무용단 합흥에서 공연

【합흥 6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로씨야 이고리 모이세예브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무용단이 22일 합흥대극장에서 공연을 하였다.

류현식 합경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규민 합경남도당위원회 비서, 판계부부부 부장, 예술인들, 교원, 연구사,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지난 기간의 공연들을 통하여 우리 인민과 친숙해진 무용단은 이날의 공연무대에 성의껏 준비한 다채로운 무용종목들을 올렸다.

출연자들은 지난 조국전쟁기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영웅적조련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형상한 무용 《빨치산들》과 《여름》을 비롯하여 로씨야인민들의 정서와 생활풍습을 담은 종목들을 펼쳤다.

공연무대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무용종목들도 올렸다.

우즈베크무용 《접시춤》, 몰도바무용 《마바예라스가》 등 종목들이 예술인들은 여러 나라 인민들의 생활모습과 민족적풍습을 재민 안상함과 제치있는 무용기교, 기백있는 춤동으로 잘 보여주었다.

출연자들은 우리 나라 무용도 무대에 올라 공연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무용단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예술단체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보여주어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가 전달되였다.

공연은 계속된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도착 [명양 6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기어이 받아내자

## 청년 학생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복수결의 모임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모임이 22일 강서구역 수산리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고에 이어 철도생산관리로 동자병정, 김일성중학교 학생김수정, 강서구역 수산리초급청년동맹비서 김승근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미제침략자들이 신성한 조국강토에 맹행한 불을 지른 날이 다가올수록 은 나라 청년학생들은 우리 인민의 철천지현수 미제에 대한 치스하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고 말하였다.

미제는 침략전쟁기간 도시와 마을, 공장과 농촌을 무참히 파괴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가 강서구역 수산리에서 강행한 저지침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학생들은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첨단들과의 열풍을 세계에 일으키며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춘

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청년학생들이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경도따라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기 위한 반미대결전에 서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기상을 떨칠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의 피행을 폭로규탄하는 시가 낭송되고 《미제살인귀를 쫓아내자!》, 《미제에 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자!》 등의 구호들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판계부부부 부부, 청년동맹위원장, 남포시와 철도성의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농업근로자들의 복수결의모임이 22일 신천시농림교양마당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리명경 농업경영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미제의 만행행위인 신천군인민위원회 책임부서 최경년, 제령군복직협동농장농장원 김영녀, 신천군농민위원회 류정숙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농민들보다도 더더욱 우리 민족의 피를 흘리고있는 이들 그들이 자기 세대주와 아이들을 우리 집애에도 불태우고 함께 일하는 동무들로서 우리 집에 관심을 돌려주어야 하겠다. 올해에도 저의 생업상과 로로되는것이 있을세라 마음 쓰는 그의 모습에 우리 가족이 감동된것은 한두번이 아닌데다, 낱새와 눈굽이 뜨거워 오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출장을 가거나 동원을 갈 때



청년 학생들의 복수결의모임 수산리에서 진행, 신천에서 농업근로자들의 복수결의모임 진행

# 그 진정한 고마와

영에군인에게 먼저 맛보이자와 하면서 바쁜 시간을 내여 저를 찾아오군 하는 김라미녀 성입니다.

이제는 그와 우리 가정이 한 식술로 되었습니.

저는 심장으로 걸잡하였습니.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 속으로 화복한 대가를 이룬 우리 인민 모두가 다 친형제이고 혁명 동지들이니.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저의 심장에는 당과 조국을 위하여 바칠 애국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있습니다.

저는 고마운 사회주의대가의 귀중함을 언제나 잊지 않고 일편단신 우리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갈것입니다.

서성구역 석봉동 61인민반 영애군인 김 원 일



성인들입니다. [조선중앙통신]

# 모략적인 합선 침몰사건의 진상은 숨길수 없다

## 조 선 중 앙 통 신 사 고 발 장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이 남조선피괴군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다.

미국이 남조선의 역적패당과 공모하여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주기 위해 《북 어뢰공격설》을 유엔무대에까지 들고나와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달라붙고 있지만 그들의 추악한 기도는 파란을 면치 못하고있다.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사건의 진범인, 도발자들을 규탄하는 정의의 목소리가 세계적규모에서 날로 고조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천안》호침몰사건을 기화로 더욱 무모하게 강행되는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침해행위로 탁인하면서 그 진상을 폭로단죄하는 고발장을 발표한다.

### 1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이 떠드는 《북 어뢰공격설》은 아무런 과학성도 없는 날조이다.

1. 5m크기의 어뢰추진체를 미국, 남조선의 첨단탐지수단을 장비한 합선 수심척이 달라붙어 50여일이 지나도록 찾지 못하다가 갑자기 민간어선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상식밖의 일이다.

《천안》호를 《민간선박에 의한 수거》를 합리화해 보려고 민간어선이 그물로 어뢰추진체를 끌어올려버리는 것으로부터 적중기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화전자료를 만들어 방영하고 유엔에도 들고갔다. 그러나 이 정체 불명의 물건 찍을 《수거》하는 화원이 어뢰추진체의 정체를 밝히는 자료로 필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천안》호를 두동강냈다는 어뢰의 추진속 스크류, 발동기 등에는 휘어되거나 손상된것이 전혀 없다.

《합동조사단》 단장으로 사건조사에 참가하였던 윤덕용은 《조사단》의 미국, 오스트랄리아관계자들이 추진체가 나무 온전함에 대해 《놀라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있다고 말한다.

남조선항간에서는 이를 두고 《결거리에 서 돌맹이를 하나 주는 후 수거식시대부터 사용하였으므로 주장하는것이 나 다름없다.》고 조사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피괴당들은 이 어뢰추진체가 우리의것이라는 근거로 그것의 금속재질이 7년전에 얻은 《북조선의 혼련용어뢰》와 같으며 《북조선의 어뢰소개소책자》에는 설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것은 꾀변이다.

《조사결과》 발표 당시 《합동조사단》 단장 윤덕용은 두 어뢰의 금속재질은 비교분석하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그가 직접 보았다고 했던 《어뢰소개소책자》에 대해 피괴국방부 장관 김태영이 후에 《책자형태가 아닌 CD에 수록됐다는데 정확하진》이라고 한 것은 그 《증거》 역시 존재자체가 의심되는 허황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어뢰추진체에 찍여진 《1번》이라는 글을 놓고서는 북과 남이 같은 연어를 쓴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번》이 북의 글씨체일 가능성이 있다면 남의 글씨체로 필수 있는 가능성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괴당국은 이 연한 리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무작정 북의 글씨체라고 우기면서 그 글을 쓴 마지막의 잉크에 대한 분석을 시종일관 회피하고있다.

남조선의 《경향신문》 6월 1일부는 《1번》의 과학적불일치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잉크들의 끓음점은 138.5℃, 110.6℃, 78.4℃이다. 따라서 어뢰추진체에 300℃의 열만 가해졌더라도 잉크는 완전히 타 없어졌을 것이다.

《천안》호함제의 외부형체가 뒀다면 《1번》도 타야 했고 《1번》이 남아있다면 외부형체도 남아 있어야 한다. 그것은 과학이다.

그러나 고열에 견딜수 있는 외부의 뼈끼는 타버렸고 낫은 온도에서도 타는 내부의 잉크는 남아있다.

역적패당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천안》호의 머리와 꼬리부, 골뎡 등 신체에서 발견된 흔적물질과 《북어뢰》의 추진체에서 발견된 흔적물질이 아무런 미묘한 차이도 없이 같았다는 《증거》로 내놓았는데 그것의 비과학성도 증명되었다.

피괴들은 이 물질이 《북어뢰》의 합선절단표준을 높이기 위해 화학에 혼합한 알루미늄미세가루가 산화되면서 생긴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북어뢰》 폭발성 조열과 찬 바다물의 접촉으로 비결정물질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미국 버지니아대학의 동료교수에게 의뢰하여 시험분석한데 의하면 그 경우 알루미늄미세가루가 100% 비결정성물질로 되는지는 아니라는것이 밝혀졌다.

교수는 이 시험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였으며 그것을 유엔에도 보냈다.

이에 반박한 《합동조사단》 측은 6월 11일 《국회》에서 《조사결과》에서의 오류를 공식 인정하지 않음수 없었다.

원래 《천안》호 생존자들의 사전발생 당시 화학병세를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도 피괴들은 《북 어뢰공격설》을 주장하였으니 알루미늄산화물질이 《천안》호의 포사격때 생긴것일 가능성이 대해서서 여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작정 배제해버렸다.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의 《조사결과》는 이처럼 모순과 의혹투성이 인격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여론의 배격을 면치 못하고있다.

6월 11일과 14일 남조선의 진보단체들인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미국의 동포단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리사국들에 서한들을 보내었다.

서한들은 《북의 어뢰》가 《천안》호가 가까이서 폭발했다면 옹당 합선에 무수히 박혀있어야 할 어뢰파편과 폭발물의 폐허 있기 마련인 귀머지, 골절된자가 없는 현상 등을 들면서 《북 어뢰공격설》을 전면부정하였다.

남조선에서 《천안》호의 형광등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침몰수역에서 카나리페를 비롯한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두고 《마술형광등》, 《북 어뢰공격예측한 백령도카나리페》 등 유모아들이 널리 퍼지고있는것은 당국의 《조사결과》에 대한 민심의 배격이고 조소이다.

남조선 《정권》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불신감이 무겁게 호르고있다.

7일 《외교통신부》 청사에서 당국자들을 상대로 《북 어뢰공격설》에 대한 《합리적인심》들에 대해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모임까지 진행되는 《보기 드문 회국》이 펼쳐졌는데 유엔이 아니다.

6월 17일 중국의 《환시보》는 《《천안》호는 어뢰가 격침시켰는가》라는 제목으로 중국군사전략문제전문가의 글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재 남조선측이 제공한 《증거》만 가지고는 《천안》호가 어뢰공격에 의한 폭발로 침몰되었다는 결론을 증명하기 어려울것이다.

《천안》호가 두동강이 나 침몰될 때 미국과 남조선의 해군은 바로 사건발생해역에서 합동반잠열을 진행하고있었다. 무수히 많은 수중음향탐지기가 귀를 도사리고 엄밀히 감시하는 속에서 일반합선이 연승해역에 접근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반잠열선의 거작과 탐색대상은 바로 북조선잠수함이었다. 남조선측은 북조선소형잠수정의 《행위》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북조선의 소형잠수정이 《천안》호사건현장에서 활동하였다는 어떤 기록도 발표하지 못하고있으며 북조선의 소형잠수정이 어떻게 중중첩첩의 방책을 뚫고 연승중심수역에 잠입하고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귀신도 모르게 어뢰를 발사한후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며 유체가 떠났는가 하는데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측이 발표한 가장 중요한 《증거》의 하나인 어뢰추진기를 《천안》호 침몰사건과 연결시키자면 보다 많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6월 28일부는 《로씨야와 중국은 《조사결과》를 전혀 믿지 않는다. 남조선의 《조사결과》에는 서술되지 않은 증거와 사실이 많으며 은분 루페추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객관적 조사》는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이 공모 결탁하여 만든 음모와 모략의 산물이다.

4월 1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리명박역적도와의 전화회담에서 사건 《조사과정》에 적극 《협력》할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 남조선장경 미군사령관 박석자 피괴국방부에 나타나 《최고수준의 지원은 어찌하지 않겠》이라고 떠벌이었다.

미국으로부터 사건발조를 위한 인원과 장비들이 남조선에 날아들고 여기에 남조선장경 미군과 미태평양함대의 장비와 병력까지 증강되었다.

미국은 남조선이 감당할수 있는 분야까지 가라면서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독단행동을 하였다.

미국과 역적패당은 《조사과정》에 《객관성》의 간판을 붙이기 위해 남조선의 민간인들과 외국인들을 데려가서 《민군합동조사단》이라는것을 만들어냈으나 여기에 들어간 민간인들은 사실 조사에 참가하지도 못하였다.

남조선의 《민주당》이 추천한 전문가는 《군으로부터 일정과 조사항에내역에 대한 정보를 단 한건도 제공받지 못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백령도에 있는 《독도함》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다고 통보 받았다고.》고 까뻐하였다.

피괴국군은 미국의 지휘종중하에 《조사단》의 구체적인 구성상태와 조직체계까지 철저 비밀에 붙여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유엔 《민간조사단》의 논과 귀를 가리우고 《민》을 둘러리리 세운다는 우렁가 현실고 드러났》이라고 비난하였다.

《합동조사단》에 들어간 외국인들의 역할도 연막속에 가리워졌다.

로씨야신문 《포름. 엘에스카. 루》 6월 6일부는 《《국제합동조사단》에는 절반이상 미군인이며 나머지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속하였다.》고 하였다.

6월 11일 인터넷통신 뉴스기에 노보스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천안》호침몰사건 《조사단》이 발표한 아무런 증거들은 심각한 비난을 초래하고있다.

었던 나라들의 전문가들이다. 그들이 침몰을 지킬데 대한 명령을 받은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하였다.

영국은 《조사단》에 참가한 영국전문가들에 대해 홍보배출에 대한 공식제의를 받고 아직도 합구무원이며 카나리는 《조사결과》 발표를 4일 앞둔 5월 16일 언론가들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으나 그들이 언제 남조선에 도착했는지, 실지 《조사》에 참가하거나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스웨덴에는 《조사단》에 참가하여 기술적방조단을 주고 책임한계를 밝히는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사단》 단장이 미국과 오스트랄리아에서 왔다는 《전문가》들은 어뢰를 찾기 위해 해저를 조사한적이 없는 사람들로 제임으로 실토한것은 그들의 《전문성》을 심히 의문시하게 한다.

미국과 리명박역적당은 《북 어뢰공격설》에 불리한 자료들은 은폐하거나 저들의 꾸미에 맞게 변경시켰다.

《국방부》가 발표한 사고현장과 피괴군 자동물선체에서 기록된 현장의 위치가 약 1.6km 차이나는것, 사건발생시 현장부근의 날씨가 민간부문의 기상자료에 있는 파도가 낮고 은화하였다고 되어있지만 군부의 자료에는 풍량이 세고 사나웠다고 되어있는것, 《천안》호가 평지와 달리 백령도에 근접하여한 리유, 어뢰에 부딪힌 큰 물고기들이 일어나고 두동강이 나서 그 자리에 침몰하였어 할 급의 합선이 약 1km나 화한것은 그 자료를 《조사결과》에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사건해명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발생순간의 《천안》호 조습에 대한 열상탐색 장비 (TOD)의 통화상자도, 합선전단부위에 있던 가스라인실 그리고 디젤엔진이 《조사》에서 루락되었으며 공개되지도 않았다.

백령도와 그 주변에 있는 피괴군감시소 소대로 찍은 TOD의 통화상자로는 합선의 사고발생경과 그 화상모습은 있으나 신형과 사순교를 담은 자료는 없다. 공개된 영상자료들마저도 처음에는 1분 20초만 영상으로 편집하여 내놓았다가 사회여론의 비난에 못겨 후에 40분으로 늘어났으며 《머는 없다.》고 하던것이 다시 거센 압력에 의해 추가화하여 공개되었다. 이것은 사고순간의 동영상자료가 어디엔가 감추어뒀다는것을 말해준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리정희는 5월 19일 《《천안》호 침몰사건 합선과 합미분리장면을 담은 TOD영상입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이 사실을 폭로하였다.

《합동조사단》은 《북의 어뢰》로 인해 가동 조작적인 충격을 받은 부분은 가스라인실과 엔진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사에서 핵심인 가스라인실은 《조사결과》발표전인 5월 19일에는 인양되었다.

《가스라인실은 물론 아직 인양되지 않은 디젤엔진을 《조사결과》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다.》 하는 질문에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만으로 충분히 사고원인을 추정할수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조사를 내놓고 거부하였다.

《민주당》 《천안》호특별위원회가 열마진 사고당시 《천안》호의 정황회와 교신일지, 보고내용과 항적기록, TOD 통화상자자료, 최수현 파편분석결과에 대한 열말 등 63건의 정보를 공개할것을 피괴당국에 요구한것은 역적패당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은폐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미국과 역적도당은 《북 어뢰공격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증거》조차도 서슴지 않았다.

《천안》호의 함미를 인양하여 대청도 부근으로 옮긴후 특수전력대와 해난구조대를 그안에 투입하고 《그들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였지만 이를 놓고 남조선각계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힐 증거를 없고도 정보만을 위약하려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있다.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인대표들은 6월 11일 공동성명에서 군당국이 TOD동영상은 고의적으로 배물렸으며 《합동참모본부》의 장교들이 배물렸을 시 술에 잔뜩 취하여 지휘통제실을 비탈렸다고 하면서 씀방은 이 사실만으로 두 군부가 거짓말을 입삼아했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명은 군부가 저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현실고 드러냈》이라고 비난하였다.

《합동조사단》에 들어간 외국인들의 역할도 연막속에 가리워졌다.

로씨야신문 《포름. 엘에스카. 루》 6월 6일부는 《《국제합동조사단》에는 절반이상 미군인이며 나머지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속하였다.》고 하였다.

6월 11일 인터넷통신 뉴스기에 노보스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천안》호침몰사건 《조사단》이 발표한 아무런 증거들은 심각한 비난을 초래하고있다.

우선 《조사단》에 왜 미국의 동맹국들만 포함되고 로씨야,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는 참가하지 않았는가 하는것과 조권의 검열단파견이 명백한 리유없이 거절된 것이다.

리해되지 않은것은 남조선이 《대법원》 발표후 자기의 논과 증거를 더 명백히 밝힐 대신 《웅징》, 《노복》을 떠벌며 히스테리를 부리다가 점차 《사과》, 《책임있는자 처벌》로 후회한것이다.

6월 5일 서울주재 미국지사는 《조사단성원들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이 중 스웨덴에서사람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남조선에 군대를 보내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은 《천안》호침몰사건조사에 립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여 저들에게로 쏘리는 세계의 여론을 완전 무시, 전면배격하였다.

세계의 광범한 여론은 합선침몰사건 초시기부터 사건의 책임이 돌아오던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있으며 국제사회에게 그들을 심판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로씨야 태평양함대의 정찰소식들은 《천안》호가 어뢰에 의해 침몰된것은 사실이나 《북의 어뢰》가 아니라 미국의 최신엔진자력잠수함에 소형잠수기구조로 발사한 특수어뢰에 의한것이라고 밝혔다.

이 나라 신문 《포츠볼스까야 크라우다》 5월 27일부는 로씨야해군참모부 해군대좌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런 사건은 세계공동체를 숙여넘겨려는자들의 《고안품》이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승승의 언론술》이다. 이라크전쟁을 개시할 때 미국이 어떤 거짓정보로 유엔을 속여 냈었는가 하는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천안》호사건 역시 미국의 《작간》이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리명박역적당은 《북 어뢰공격설》을 조작하고 히틀러가 못된것을 하였으며 《로고국사건》을 꾸미고 일본이 중국대륙침략의 길에 들어섰으며 《바코보만사건》을 조작하고 미국이 뿔남침략정착을 확대하였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언론들은 물론 미국의 평론가들까지도 《천안》호사건을 1964년 8월의 《바코보만사건》과 대비하고있다.

카나다활동가 스페른은 《천안》호사건은 또 하나의 《바코보만사건》으로서 《침략자 자체방위의 미명하에 침략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녁의 피해자를 규탄하는 일》이라고 단정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동문제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소장 알렉산드르 쉼빈은 6월 8일 남조선의 《천안》호침몰사건에는 모순적인 측면들이 많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정치적목적을 노린 도발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은 1964년에 바코보만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실례로 들고있다. 그때 미국은 저들의 구축함이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뿔남침략정착을 확대하였다. 그런데 좀더 가까운 실례를 들어보자.

7년전 미국대통령과 미국무장관은 이라크에 대항상륙무기가 있다고 하면서 미국군과 동맹국을 나아가서 전세계를 속이고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 오늘날까지도 이라크에서 대항상륙무기는 나타나지 않고있다.

로씨야의 리아-노보스제통신은 5월 26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조침합의 경우 첫눈에 보기에 모든것이 간단한것 같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동아시아나라들은 그러루한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기억하고있다. 남조선리명박역적파괴당과 리명박역적당에 주동하고있는 사실이 폭로되는것이 두렵고 남조선에서 반미감정이 분출될것을 우려해서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미군철수운동본부》는 4월 17일 《천안》호의 함미가 들어올려짐으로써 금란 알아볼수 있는것은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라는 점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외부총격의 가해자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용의자는 미군잠수함이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남조선장경 미군사령관과 함께 황급히 사고해역을 돌아온 극히 이른행인 그리고 남조선잠수파가 《천안》호침몰지점인 안 해 3건의 지점 (미군잠수함침몰로 추정되는)에서 작업하다 죽었다는 점, 미군잠수부들이 몰랐던 《천안》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3의 지점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추적하고있었다는 점 등이 이런 혐의를 줄게 하고있다.

《범죄자는 반드시 범죄현장을 방문한다.》라는 범죄수사의 격언은 립상시키는 대목이다.

이 모 든것은 《북 어뢰공격설》이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이 저들의 범죄를 가리우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넘겨줘주기 위해 무적의성적으로 조작한 날조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 2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이 떠드는 《북 어뢰공격설》의 위에는 《천안》호사건을 통해 그들이 추후하는 추악한 정치적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공모결탁의 타버운 내막이 숨겨져있다.

미국과 역적패당이 《조사결과》를 남조해내며 이어 《후속대응》에서도 김일히 결탁한 사실을 통하여 그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5월 20일 《조사결과》가 발표피괴파변재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남조선피괴군과의 조침합에 《북조선으로부터의 장래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것을 미군에 지시함으로써 《북조선위협론》과 그에 따르는 지역의 《안보불안》이 극도에 달한듯이 여론을 오도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전시작전지휘권반환》을 연기하는 문제가 미국회에 상정되고 미국과 피괴당사이에 미태평양함대의 주력을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미명하에 조선선해에 끌어다놓기 위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벌어졌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미국방성은 동아시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안전보장지침인 《아시아태평양전략보고서》를 올해 10월까지 작성하고 아시아태평양시대에 21세기에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보다 강화할 기도를 로물적으로 드러내놓았다.

《한나리앙》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무부 수석리들은 《천안》호사건을 《9. 11 사건》에 비유하면서 미국의 《테로수술방식을 따라배워야 한다.》느니 뉘니 하고 떠벌고 반공화국전면대결을 선포하는 등 《북쪽》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었다.

미국과 피괴패당은 《지방자치제선거》를 통하여 《북쪽》음모가 여지없이 판 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강제》를 이끌어내보려면 기도를 통하지 않게 되자 월드컵축구경기방영문제까지 거들어 우리를 《범죄국가》로 몰아붙여리 하다가 세계대전에서 개교양신만 당하였다.

리사들을 돌이켜보면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 조작하고 히틀러가 못된것을 하였으며 《로고국사건》을 꾸미고 일본이 중국대륙침략의 길에 들어섰으며 《바코보만사건》을 조작하고 미국이 뿔남침략정착을 확대하였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언론들은 물론 미국의 평론가들까지도 《천안》호사건을 1964년 8월의 《바코보만사건》과 대비하고있다.

카나다활동가 스페른은 《천안》호사건은 또 하나의 《바코보만사건》으로서 《침략자 자체방위의 미명하에 침략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녁의 피해자를 규탄하는 일》이라고 단정하였다.

로씨야과학원 국동문제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소장 알렉산드르 쉼빈은 6월 8일 남조선의 《천안》호침몰사건에는 모순적인 측면들이 많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정치적목적을 노린 도발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문가들은 1964년에 바코보만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을 실례로 들고있다. 그때 미국은 저들의 구축함이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뿔남침략정착을 확대하였다. 그런데 좀더 가까운 실례를 들어보자.

7년전 미국대통령과 미국무장관은 이라크에 대항상륙무기가 있다고 하면서 미국군과 동맹국을 나아가서 전세계를 속이고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 오늘날까지도 이라크에서 대항상륙무기는 나타나지 않고있다.

로씨야의 리아-노보스제통신은 5월 26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조침합의 경우 첫눈에 보기에 모든것이 간단한것 같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동아시아나라들은 그러루한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기억하고있다. 남조선리명박역적파괴당과 리명박역적당에 주동하고있는 사실이 폭로되는것이 두렵고 남조선에서 반미감정이 분출될것을 우려해서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미군철수운동본부》는 4월 17일 《천안》호의 함미가 들어올려짐으로써 금란 알아볼수 있는것은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라는 점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외부총격의 가해자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용의자는 미군잠수함이다.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남조선장경 미군사령관과 함께 황급히 사고해역을 돌아온 극히 이른행인 그리고 남조선잠수파가 《천안》호침몰지점인 안 해 3건의 지점 (미군잠수함침몰로 추정되는)에서 작업하다 죽었다는 점, 미군잠수부들이 몰랐던 《천안》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3의 지점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추적하고있었다는 점 등이 이런 혐의를 줄게 하고있다.

《범죄자는 반드시 범죄현장을 방문한다.》라는 범죄수사의 격언은 립상시키는 대목이다.

이 모 든것은 《북 어뢰공격설》이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이 저들의 범죄를 가리우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넘겨줘주기 위해 무적의성적으로 조작한 날조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 목적은 명백히 정치적정격을 떠는바 북조선을 고립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한것이라고 하였다.

6월 10일 로씨야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조진교장 알렉산드르 위론조프는 《남조선조침합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천안》호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후,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은 마치 도 사천에 면밀히 준비한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데 인상이 강하게 든다. 남조선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유엔안보리사회를 통한 《대북압박》을 보다 강화하는것을 《리상적인 방안》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중국과 로씨야를 참가시키기 위해 무전 에를 쓰는중이다. 미국에서는 벌써 어떤 사건이 중국린접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정치적이익을 더 잘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을 조정하고있다.》

구비혁명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는 6월 4일 미국이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적세를 위해 《천안》호사건을 조작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과 이란 등 저들의 비위에 거슬러는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권력을 일삼으면서 이런 나라들에 대한 회유와 모략으로 세계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통신 뉴스기에 노보스키는 《《북의 어뢰》에 비긴 미국군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는 북에도 남에도 리름지 못하며 오직 미국에만 유익하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목을 묶여있는 조선에서 기술을 배우고 《다란 손》을 빌려리 하고있다. 즉 북조선을 암살하는 부대를 남조선에 넘겨리우고 저들은 《영양보존》을 하리 하고있다. 또한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북조선과 중국을 갈라놓을수 있다고 타산했었던것이다.

중국 홍콩신문 《아시아타임스》 6월 9일부는 《천안》호사건은 날로 총계 발전하고있는 북조선과 중국사이에 제기를 초벌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이렇듯는 기도의 발로이라고 폭로하면서 이렇게 썼다.

《천안》호사건은 중국을 거냥한 꾀비나야로서 미국이 최근 남조선침공을 적극적으로 비호해나서는것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고립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비로소 《천안》호꾀비나이가 오바마의 《아시아재개입》정책의 개시로 된다것을 간파하였다.

중국 홍콩신문 《대공포》 6월 8일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금 미국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천안》호사건이 필요하다.

북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존재와 역할이 크게 미소시되고있는 현 상황에서 《천안》호사건은 미국에 지역에서의 군사적존재를 강화할수 있는 아주 좋은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압력에 못기 짝이 없는 민주당정권은 팀장을 바꾸어 미국과의 판계를 다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리 되었다. 미국은 《천안》호사건을 통해 남조선피괴의 판계를 강화하였을뿐아니라 일본도 오직에게 함께 로씨야를 바꾸어 리익을 보았다.

신문은 계속해서 리명박피괴패당이 노린 목적에 대해 《그것은 첫째로, 국민들의 추위를 면대리 돌릴수 있고 둘째로, 국제사회의 광범한 동정을 얻어 창발을 북조선에 돌릴수 있음 셋째로, 미국과의 동맹판계를 보다 강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명화하였는 리명박 《정부》가 이번 사건을 기화로 남조선을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지정학적동반자, 외교적기동으로 만들고 북조선에 보다 큰 국제적압력을 산출리 하고있다는것이다.》고 깨뻐하였다.

리만드 코빈포를통보사 사장은 5월 20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리명박 《정권》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려는 정치적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조작하였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리념을 볼 때 동쪽을 반대하는 군사적행동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의의론을 내리리며 이 나라를 반대하는 군사적모략책들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같은 사실은 《천안》호사건이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권리를 꺾어내리고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려는 어리석은 정치군사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날조한 모략의 일이라는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피괴당들은 1953년 정전협정체결절차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근 60년간 《투에블로》호사건, 《EC- 121》대형원격비행기사건 등 우리를 반대하는 은 갓 행위를 끊임없이 강행하였으며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같은 모략책들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모략의 진상은 밝혀졌으며 범죄자들은 정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였다.

※ ※

《천안》호사건은 미국과 남조선의 리명박역적패당이 저들의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해 꾸며낸 과편찬한 날조극

## 조일관계의 근본을 외면한 부당한 입장

얼마전 일본정부의 새 집권자가 소신표명연설에서 대조선정책의 기본내용을 밝혔다. 그것은 요약해보면 《람치, 핵 및 미사일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 과거청산과 일조관계정상화를 추구해나간다는 것이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체면유지, 정치지적술에 치지 않는다는. 일본의 집권자들에게도 《람치, 핵 및 미사일문제》 해결을 대조선정책의 골자로 내세우지 않은 인물이 없다. 이전 수상들인 하토야마, 아소와 아베 등이 모두 그러했다. 새 집권자가 소신표명연설에서 《람치, 핵 및 미사일문제》 해결을 통해 과거청산과 일조관계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신중히 이전 집권자들이 한 소리와 같다. 그것은 한마디로 구유리만대파들의 지적과 반발을 모면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어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민심잡기라 하는 것이 대변에 일된다.

권력싸움이 매달과 같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1년이 멀다 하게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일본의 정치상황이다. 이런 속에서 일본 집권자들만 정치체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운명도 민심잡기에 힘쓰고 내몰리는 것이 바로 《람치, 핵 및 미사일문제》 해결이다. 신인자가 《람치, 핵 및 미사일문제》를 정치적 운명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풀러내면 또 다른 집권자가 나서서 판에 박은 소리로 어수선한 일본정치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하루라도 더 권력을 지탱하려고 오그망수를 써왔다. 현 일본집권자들이 소신표명연설이 이와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람치, 핵 및 미사일문제》 해결

을 과거청산과 조일관계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그가 조일관계개선의 선후차와 근본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조일국교정상화는 무엇을 주고받는 식의 흥정물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이 희망하는 과거를 깨어선 기호우에서 조일사이에 선린우호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기본은 일본이 자기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현시점에서 일본앞에 나타난 것은 금선무는 《람치, 핵 및 미사일문제》 해결이 아니라 과거청산이다. 과거청산은 조일관계개선의 중핵이고 근본이다. 과거청산을 떠나 일본이 《람치, 핵 및 미사일문제》 해결을 논하는 것은 판계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길에 더 높은 장벽을 쌓는 것으로 된다.

과거 일본은 우리 인민앞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 사실 일본집권계층들이 정치적식견이 있고 앞을 내다볼 줄 안다면 《람치, 핵 및 미사일문제》를 들고나오기 전에 과거청산을 위한 판관적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에 달라붙어야 할 것이다. 과거 40여년간에 걸친 것은 일본의 우리 나라 강점과 전대미문의 파쇼 통치, 인권을 탄압을 덮어두고 일조관계정상화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 인민과 인류방식, 정의에 대한 우롱이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압이 840만여명을 강제연행, 람치하고 20만명의 조선노동자들을 끌어들여 일본근로노예생활을 강요하다가 거의 모두 죽음에 이르렀다. 일제는 강점기간 우리 나라의 모든것을 강탈해 갔어왔으며 조선민족자세를 없애

버리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처럼 극악무도한 일제의 죄행이 전후 60여년이 된 오늘까지도 결산되지 않고 있다. 역대 일본집권자들은 일제의 비인간적 조인침략죄행을 변히 알고있으면서도 과거청산에 대해서는 입박에 내기조차 싫어하고 조일사이에 선린우호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인민을 모욕하였다.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의 반감은 결코 일시적인 감정이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생겼던 것이 아니다. 남에게 치욕과 죽음을 강요하고도 그에 대해 성근한 반성과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과연 누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겠는가. 일본이 과거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엄청난 침략죄행에 대해 배상을커녕 사과할 생각조차 안하면서 조일국교정상화를 거론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다. 일본이 걸로서는 일조관계개선을 표방하지만 속은 판판이다.

일본은 미국과 야합하여 반공화국 군사적협력수동을 끈질기게 벌리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명백히 말하면 《핵 및 미사일문제》에 대해 격정할 것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이다. 일본은 이미전 에 가지 미사일들을 개발하였으며 미국과 공조하며 미사일발사훈련을 하면서 《자위대》의 해외침략준비를 완수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핵의 군사적리용에 눈을 돌리고 핵무기제조에 달라붙었다. 1941년 5월 일본 물리화학연구소에서는 100여명의 연구구르백자 원자탄제작연구에 착수하여 1943년 5월에는 기술적

으로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는 보고를 수상에게 제출하였다. 핵야망을 후 60여년이 된 오늘까지도 결산되지 않고 있다. 역대 일본집권자들은 일제의 비인간적 조인침략죄행을 변히 알고있으면서도 과거청산에 대해서는 입박에 내기조차 싫어하고 조일사이에 선린우호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인민을 모욕하였다.

일본은 언제든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협력을 단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일본은 남조선미피들이 조 작한 《천안》 호침몰사건을 계기로 그 무슨 《지지》와 《협력》을 떠들어대며 조인침략전쟁에 뛰어들러는 기도를 로물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일본이 진정으로 자기의 안보를 우려한다면 자국이 널리있는 미군사력들을 전면철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서로 연극으로는 사람을 웃길 수 있어도 나라들사이의 적대관계는 풀 수 없다. 조일관계문제는 오직 과거 청산에 의한 신뢰도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조일관계개선의 원핵과 단계, 순차적은 명백히 주어졌다. 일본이 진실로 조일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그 근본을 푼다. 일제가 거창한 우리 나라의 일조관계정상화책은 기만이고 일종의 판대극이다. 과거청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조일관계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조일관계개선의 근본인 과거청산의 정치적 단계를 내려야 한다.

백 문 규

##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지 말라

남조선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현인택이 극악한 대결광신자로서의 정체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지난 15일 《국회대정부질문》에 나선 역도는 《혼란》이니 뭐니 하는 허무없는 남조선설을 늘어놓으며 도발적인 《국문사태》 망발을 또다시 쳤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대북전쟁》에 관한 《토론회》라는 데서도 앞으로 2-3년이 《분수령》이니, 그 무슨 《선택》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수작을 늘어놓았다. 현인택이 도발적인 약담들을 함부로 쏟아냈는 우리의 존엄을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으로서 어떻게 하나 우리를 해치고 반민족적인 《제도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드러낸 망발이다.

리명박패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배치되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공공연회 제창하면서 《국문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이라는 것까지 제공하고 체제대결에 미처 날렸는 폭로된 사실이다. 이 대결수동의 의장에 바로 현인택이 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적인 《건강하고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바란다 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타러는 진격》으로 북남관계의 문을 닫아메고 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제제와 압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기반을 고대하였다. 현인택의 이번 《국문사태》 망발도 그것을 립증해주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날에 그 기념행사에는 머리로 들이밀지 않고 황창 같은대 나라이 모략적이며 황창하지 그지없는 《국문사태》 설을 또다시 입에 올린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이자의 체제대결광증, 《제도통일》 야망이 얼마나 지독하고 뿌리깊으며 악랄한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현인택역도가 그 무슨 《분수령》이니, 《선택》이니 하고 떠들어댄것도 스쳐지날 수 없다. 한 실현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드러낸 망발이다. 《건강하고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바란다 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타러는 진격》으로 북남관계의 문을 닫아메고 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리명박패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배치되게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공공연회 제창하면서 《국문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이라는 것까지 제공하고 체제대결에 미처 날렸는 폭로된 사실이다. 이 대결수동의 의장에 바로 현인택이 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적인 《건강하고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바란다 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타러는 진격》으로 북남관계의 문을 닫아메고 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

【평양 6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가 2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는 평양시내 출판보도부문 기자들과 외국특파기자들이 참가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범민련, 범청학련 북측본부 성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한상렬목사가 발언하였다.

그는 평양으로 오게 된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5.18민주항쟁 30돐을 맞이하면서 나는 몹시 괴로웠다. 항쟁당시 나는 고향인 전주에서 체포되어 군사재판을 받았다.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어떻게 되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라해의 유방이 잘라우고 입신부의 배가 갈라지고 철부지어린이가 총에 맞아죽고...

전두환패거리가 왜 이렇게 살판을 치는가. 그것은 분단때 살판에. 나라가 두통강이 나다보니 《반공안보》를 내세우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



요즘 일본반동들이 미국과 남조선미피들이 조작한 《천안》 호침몰사건을 계기로 반공화국수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체제강화를 떠드는가 하면 《람치 및 미사일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판계개선을 논할 수 있다고 소리들을 외치고 있다. 그야말로 가소로운 수작이다.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수동은 국제사회계의 눈길을 띠며 돌리 저들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죄행을 우막속에 묻어버리고 그 그늘 밑에서 오래동안 품어온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하고 아시아의 맹주행세를 하던 《대일전쟁국》을 기억이 되달려보자는 것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는 덮어버릴 수도 지워버릴 수 없다.

올해는 일제의 패망 65년, 《한일합병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 우리 인민은 일제의 과거죄행의 대가를 기억이 말아내려는 결의와 대일적격심으로 가슴을 불태우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 인민에게 져서 없는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렀다. 특히 지난 세기 전반이 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강제연행, 람치범죄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일제는 조선강점시기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

민중화는 통일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과 민주는 함께 있다. 미국의 개인사실을 놓고 자주의 파제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자주, 민주,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사명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민족의 한사람, 신인임으로서 사강, 자유, 정의, 평화, 통일, 자주, 민주정,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그 실현을 위해 열심일었다. 그러나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해 늘 부끄러웠고 회송스러웠다. 특히 현 《정권》의 반민주, 반민중, 반자주, 반통일적인 행태를 보면서 더욱 고민하게 되었고 광주 망월동묘지가 머무르며 단식철폐까지도 드러났다.

그 나날에 걸심한 것은 바로 6.15를 살리기 위해 내가 분단정부를 줄고 한문평화, 통일정화의 실천자를 직접 지는 것이었다.

6.15공동선언발표 10돐



##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

### 기자회견

을 맞아 평양에서 대추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때가 한다고 그저 순응하듯 주저앉아있을 수 없었다.

6.15를 죽이는것은 메국이요, 6.15를 살리는것은 애국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분단력사를 통일의 력사로 바꾸는 일에 이철이 한방울의 물이라도 될 수 있다며 일어나니 좋기를 하고 기도하며 화해와 평화, 통일의 사자로 평양을 오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그는 삼천리강도를 뒤흔든 력사적 순간을 회상하며 주저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그는 삼천리강도를 뒤흔든 력사적 순간을 회상하며 주저앉아있을 수 없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김대중대통령과 공방에서 뜨겁게 손을 맞잡고 포옹하시는 모습

이 눈에 생생하다. 남북 동포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자애와 풍부한 유모아, 지혜와 결단력, 밝은 웃음 등등에 깊은 인상을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가 기자회견을 하다가 평양에서 대추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때가 한다고 그저 순응하듯 주저앉아있을 수 없었다.

6.15를 죽이는것은 메국이요, 6.15를 살리는것은 애국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분단력사를 통일의 력사로 바꾸는 일에 이철이 한방울의 물이라도 될 수 있다며 일어나니 좋기를 하고 기도하며 화해와 평화, 통일의 사자로 평양을 오기로 결심하였다.

##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를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사람들을 강제연행, 람치하여 전쟁대표로 삼고서 죽여 버렸거나 죽을의 고역장에 내몰아 마소와 같이 부러먹었으며 100여만명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노역하였다. 국제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낸 일제의 과거 강제연행, 람치범죄는 력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남았다.

일본군 《위안부》범죄는 국가적으로 조직한 강제연행, 람치행위의 직접적산물로서 세계대전의 람치국인 일본의 범죄적죄행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다. 1918년 씨비리침략전쟁 후 일본당국은 《군대의 전투력을 보 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적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는 번째적인 군사문제를 기조하여 군대에 《위안부》 제도를 내세운 것을 확신했다. 그리하여 1920년대부터 다른 나라 녀성들에 대한 강제연행, 람치가 행해졌으며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 진행 기간 계속되었다.

일본군성들은 왕의 승인, 지명된 후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내세우고 판관하였으며 《위안부》 확보와 《위안부》 설치를 직접 추진하였다. 군부개체를 목표로 따라 조선과 아시아지역 녀성들에 대한 람치, 강제연행, 유폐행위가 감행되었다. 그러한 범죄행위가 가장 생생한

지역은 우리 나라였으며 그 기본당대자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였던 《조선총독부》였다. 조선에서의 일제의 녀성람치, 강제연행범죄행위는 중대적 《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서 그 야만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전례없는 것이었다. 일제는 깊은 밤 농가를 습격하여 녀성들을 잡아들이고 대낮에 자동차를 끌고가는 놀에서 일하거나 길가 언덕,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녀성들을 강제로 전차행렬 견어내고 갈대나군 하였다. 20살안팎의 녀성은 물론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여 있거나 트럭에서 소풍놀이하던 어린 소녀들, 에기 어머니와 결혼식을 앞둔 약혼녀까지 람치, 강제연행하였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도발후 일제는 조선녀성들에 대한 강제연행, 람치, 유폐행위를 더욱 대대적으로 감행하여 그들을 아시아의 평범한 지역으로 전이시켜 버렸다. 이에 하여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타이, 만다 그리고 오기나와, 휴가이도, 꾸릴령도, 싸할린, 팜도 등 일제의 침략지들과 일본군이 주둔해있던 곳에서 장교들과 병졸들에 대한 《성봉사》를 강요당하지 않았던 일이 없다.

일제는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녀성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자국의 섹시공우를 총성시켜주는 《동물》로 취급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위안부》를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알몸통이 못이 된 환자에 걸러 피투성이가 되게 하거나 목을 잘라죽였다. 그것도 수차례 없이 불에 탄 쇠뿔처럼 수물에 바락바락이 눈알과 젖가슴을 드러내고 입신부의 배를 갈라치는 등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하고 피폐한 잔인행위를 감행하였다. 지옥같은 살육만행은 갈행하였다. 지옥의 고통속에서 살다가 비명에 죽지 않으면 안되었다.

과거 일제는 수많은 우리 인민들을 강제연행, 람치하여 노예로동들을 강요하여 불행과 고통을 불어넣어 범죄적만행도 감행하였다. 당시 침략정책의 수단화책대로 로동력의 공급상태에 빠진 일제는 그 인원을 조선녀성들이 낳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무참히 숨졌으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성노예생존자들도 수리와 도모할, 고통속에서 살다가 비명에 죽지 않으면 안되었다.

과거 일제는 수많은 우리 인민들을 강제연행, 람치하여 노예로동들을 강요하여 불행과 고통을 불어넣어 범죄적만행도 감행하였다. 당시 침략정책의 수단화책대로 로동력의 공급상태에 빠진 일제는 그 인원을 조선녀성들이 낳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무참히 숨졌으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성노예생존자들도 수리와 도모할, 고통속에서 살다가 비명에 죽지 않으면 안되었다.

통일경제 6.15를 저해하는 것이다.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확실하게 민족자본, 민족자본으로 통일경제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그런데도 경제를 좀 한다고 자처하는 리명박은 가랑뿔 경제와 실용을 놓치고 막대한 낭비하고 있다.

인도적지원을 거부하는 일도 6.15를 깨뜨리겠다는. 서로 어려움을 때 돕는 것이 인척사이다. 북반 남반에 흉수가 닳을 때 자선적 조전없이 도와주었다. 인도적지원에 정치적리타사인 개념이어서는 안된다.

그는 계속하여 《천인》 호침몰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사건은 리명박식기질에 결정판이다.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도 《합심한 북남조선》의 어떤 인신칭찬 동향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권》도 자중하는 듯했다. 그러나 《6.2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본색을 드러내며 《선거》 주요일정에 맞추어 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리용하였다.

이러한 모략과 조작을 통해 미국도 리익을 챙겼다. 결국 이 사건은 《한》 미일동맹으로 자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선거》에 리용하고자 했던 리명박의 합동사기극이라고 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6.15를 비판하고 《한》 미군사훈련 등으로 건강을 고조시켜 온 리명박이야말로 《천인》 호의 희생자들을 낸 살인범이다.

그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6.2지방선거》의 결과 수차례에 걸쳐 언급한 민주개혁세력이 대승하였다. 이로써 민심의 향배가 확연히 드러났다.

남북동포들은 더이상 《정부》의 거짓과 협력, 억압에 물려나지 않는다. 생명의 값을 살리기 위해 총중대가 들고일어났다. 민족종교계도 각성해나가고 있다. 전례없었던 계승하여 남침행의 로동자들은 온갖 탄압을 물리치며 견디고있으며 농민들도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애국 애족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는 동포로서, 목사로서 북녘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써왔다고 하면서 지난 기간 북침행을 밟으며 느낀 소감을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팔로로 자칭시 《지금 여기 6.15》를 읊었다. 이어 한상렬목사는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민주조선사, 총련 조선신보사, 로씨야 이따르-디쓰통신사, 중국 신화통신사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그는 신앙향심으로, 민족감정으로 이 길을 왔다 고 하면서 6.15를 살리는데 한복음을 바친 결의를 피력하였다.

올해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갈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그때까지 북녘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동포들과 6.15를 노래하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남조선미피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진행하기로 한 사회해상에서의 대규모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외세공조를 민족공조로 바꾸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반미자주의 새세상을 열어 나갈것을 호소

조국통일반민족행 남측본부가 신초순, 심기식 두 주중창장이 미제침략군에 의해 살해된 때로부터 8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외세 배척하는 우리 민족의 법정은 아직 단지가 않았으며 살인범죄집단 미제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안고 타오른 반미초풍은 오늘 반미반전 반독재투쟁의 불길로 온 남녘 땅에 더욱 세차게 타원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잔인무도한 미군을 반드시 몰아내어 나더린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할것이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각계층이 남북공민연대의 기치를에 굳게 단결하여 하루빨리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반미자주의 새세상을 열어 나가기로 호소하였다.

## 괴뢰정권심판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회계단체 성원들이 13일 서울에서 평화수호, 민주로조사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이번 《지방자치선거》 결과를 리명박 《정권》이 《북풍》, 《색갈론》과 같은 모략행위로써는 권력의 자리를 유지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의 로조결성을 방해하며 로동운동의 가로막으려고 발악하는것은 《정권》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현리명박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모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센산》 차골공사에서만도 수많은 조선청장면들이 참혹하게 무너져 허물어졌다. 이 사실에 대해 현인택은 《조선신문》에 발표한 목격담에서 《조선사람의 시체를 밟아 설어 흘러가는데 마구 처형 마련해 주지 않고 가혹한 로동으로 조선사람들을 혹사시켰다. 일제는 우리 인민들을 로동보초사들이 전 거 없는 군사시설물공사업자나 란 적을 만들어내어 무장공비공작을 가중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증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강점 전 기간 일제는 로동조건이 제일 나쁜 판관, 판관 등에 강제연행, 람치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들이밀어 혹사하다가 무참히 죽였는가 하면 권정리에 대로 군사시설물공사업자들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사람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고 지적되어있는 사실, 일제의 이전 동부군 첩보사관이었다 한 일본인이 극비리리에 건설을 진행하던 《마쓰시타로대방》 지하방공호에서 1945년 4월부터 5월까지 대공호의 사이에 일제에게 강제연행, 람치된 약 2000명의 조선사람들이 쇠사슬에 연결된 채로 가혹한 강제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고백한 사실은 그것을 립증해주는 단적실례도 된다.

일제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연행, 람치하여 중세사적인 노예로동 등을 강요하였을뿐아니라 무참히 살육하였다. 일본이 자랑하는 3대차골인 《시즈키》, 《단바》, 《센산》 차골공사에서만도 수많은 조선청장면들이 참혹하게 무너져 허물어졌다. 이 사실에 대해 현인택은 《조선신문》에 발표한 목격담에서 《조선사람의 시체를 밟아 설어 흘러가는데 마구 처형 마련해 주지 않고 가혹한 로동으로 조선사람들을 혹사시켰다. 일제는 우리 인민들을 로동보초사들이 전 거 없는 군사시설물공사업자나 란 적을 만들어내어 무장공비공작을 가중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증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강점 전 기간 일제는 로동조건이 제일 나쁜 판관, 판관 등에 강제연행, 람치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들이밀어 혹사하다가 무참히 죽였는가 하면 권정리에 대로 군사시설물공사업자들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사람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고 지적되어있는 사실, 일제의 이전 동부군 첩보사관이었다 한 일본인이 극비리리에 건설을 진행하던 《마쓰시타로대방》 지하방공호에서 1945년 4월부터 5월까지 대공호의 사이에 일제에게 강제연행, 람치된 약 2000명의 조선사람들이 쇠사슬에 연결된 채로 가혹한 강제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고백한 사실은 그것을 립증해주는 단적실례도 된다.

일제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연행, 람치하여 중세사적인 노예로동 등을 강요하였을뿐아니라 무참히 살육하였다. 일본이 자랑하는 3대차골인 《시즈키》, 《단바》, 《센산》 차골공사에서만도 수많은 조선청장면들이 참혹하게 무너져 허물어졌다. 이 사실에 대해 현인택은 《조선신문》에 발표한 목격담에서 《조선사람의 시체를 밟아 설어 흘러가는데 마구 처형 마련해 주지 않고 가혹한 로동으로 조선사람들을 혹사시켰다. 일제는 우리 인민들을 로동보초사들이 전 거 없는 군사시설물공사업자나 란 적을 만들어내어 무장공비공작을 가중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제의 극악무도한 인권유린범죄증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강점 전 기간 일제는 로동조건이 제일 나쁜 판관, 판관 등에 강제연행, 람치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들이밀어 혹사하다가 무참히 죽였는가 하면 권정리에 대로 군사시설물공사업자들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사람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고 지적되어있는 사실, 일제의 이전 동부군 첩보사관이었다 한 일본인이 극비리리에 건설을 진행하던 《마쓰시타로대방》 지하방공호에서 1945년 4월부터 5월까지 대공호의 사이에 일제에게 강제연행, 람치된 약 2000명의 조선사람들이 쇠사슬에 연결된 채로 가혹한 강제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고백한 사실은 그것을 립증해주는 단적실례도 된다.